

웅녀의 산신격 연구**

신 경 득*

《 차 례 》

1. 들머리
2. 웅녀신화를 이어받은 신모신화
3. 웅녀신화를 가려받은 곰설화
4. 웅녀신화를 내리받은 서낭설화
5. 마무리

<요약문>

단군신화에서 환인·환웅·단군은 삼신인데 반하여 웅녀는 삼신격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 행방도 묘연하다. 그러나, 단군이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던 것처럼 웅녀도 단군을 분만한 성모로 신모인 단골로 민중을 돌보는 서낭산신으로 좌정하였다. ‘곰’은 모신이고 여신이니 웅녀는 생명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이다. 웅녀가 첫 번째 단골이었던 것처럼 단군도 무당이다. 웅녀는 성모나 신모가 산신이었던 것처럼 환웅천왕을 만신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암 서낭이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세 단계에 걸친 검증 결과이다.

첫째로, 웅녀신화의 기본화소는 살아서는 단골이고, 죽어서는 산신이 되어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교수 문학평론가

** 이 연구는 2007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RPP-2007-002)

서낭신으로 좌정하였다는 것이 원형이다. 안확과 신채호는 단군신화를 선(仙)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풍류도라고 하였다. 안확은 서조선을 요양과 산동반도로 보고 선사상의 중심지를 요양이라고 하였으며, 의주와 평양을 요양에서 찾고 구월산을 등주로 비정하였다. 신채호는 평양을 북평양이라 하여 험독으로 비정하고 험독을 조선 왕만도(王滿都) 즉 왕검성(王險城)이라 하였다. 강릉 단오제 가운데 대관령국사신이 국사여서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산신이 되어 국사당에 숨어있던 암 서낭 즉 응녀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응녀신화의 화소는 유화성모·서술신모·아진의선·알영성모와 정견모주의 신화소로 이어받는다.

둘째로, 정백동 92호 무덤에서 발견된 장식 띠고리에서는 응녀신화를 신비롭고도 환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를 찢겨짐과 버려짐이라는 입문의례를 통하여 가려받은 것이 곰설화이다. 응녀신화에 관한 입말 이야기는 모두 4편으로, 유몽인·최상수·류증선·김균태, 강현모 등이 전하는 설화가 그것이다. 『구비문학대계』에는 모두 7편의 곰 관련 설화가 실려 있다. 응녀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되기 위하여 3·7일을 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곰설화에서 곰과 사람 사이에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은 뒤 곰이 사냥나간 틈을 이용하여 사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망을 치는데 이는 응녀신화의 화소를 가려받은 것이다. 곰이 새끼를 데리고 와 사람을 돌아오라고 하나, 그대로 가버리자 새끼를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찢어죽이거나 돌바닥에 던져 죽이고, 자신도 강물에 빠져죽거나 혹은 산으로 돌아간다. 사람과 곰 사이에 난 새끼는 물이나 땅에 묻혀야만 싹이 틀 수 있다. 그러니까, 곰설화에서 죽는 것과 버려진다는 것은 모두 새로운 생명의 소생을 의미한다.

셋째로, 지리산의 산신체계는 응석봉에 좌정한 응녀를 천왕봉에 좌정한 천왕신모가 이어받고 다시 쌍계신모가 이어받은 것이다. 노고단 남악사에 서낭신으로 좌정한 노고할미는 천왕신모의 다른 이름인 마야고·마고인데 이는 천왕신모를 내리받은 경우라 할 것이다.

응녀신화를 이어받은 신모신화는 곰설화로 변형을 거듭한다. 신모신화의 신모는 산신으로 좌정하면서 단골이나 서낭신으로 변형과 위축을 거듭한다. ‘곰’ 화소는 서낭신 뒤에 숨어 ‘곰’자 들어간 마을로 자취를 남길 뿐이다. 신승결 등

역사적 인물과 고장에서 존경받는 위인이 서낭산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있는 하지만 성모·신모일 경우는 그 주신을 웅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웅녀신화에서는 모든 역할을 웅녀가 선택한다. 이는 어머니 중심 사회의 유습이며, 꿈설화에서는 의식주문제를 모두 꿈이 해결하는데 이는 각시바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주제어: 웅녀, 산신, 서낭신, 꿈설화

1. 들머리

단군신화는 『삼국유사』권 제1 기이 제1 고조선 부분에 실려 있다. 『삼국유사』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밖에 『제왕운기』·『웅제시주』·『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등에도 전하여진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 가운데 웅녀신화 부분은 이러하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다. 늘 신웅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이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줄기를 주었다. “너희가 이를 먹고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바로 사람이 되리라.” 곰과 호랑이는 이를 받아먹었다. 삼칠일을 삼가여 곰은 여자가 되고 호랑이는 삼가지 않아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와 결혼해주는 사람이 없어 매양 신단수 아래서 아기 갖기를 빌었다. 신웅이 이에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니 단군왕검이라 하였다.1)

건국신화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을 배경으로 출생과 생산을 주제로 삼고 있다. 단군신화가 건국신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웅녀가 신화의 주인

1)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고조선 부분.

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 常祈于神雄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便 形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

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인·환웅·단군이 삼신인데 반하여 웅녀는 삼신격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으나 웅녀의 행방은 묘연하다. 심지어, 웅녀를 ‘남성 중심적 사회의 문화규범’(신은희)으로 보는가 하면, ‘주체적 존재를 상실한 타의에 의하여 존재여부를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최문형)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존재 (· · · · ·) 소외된 존재, 즉 타자화된 존재’(조현설)로 아기집을 빌려준 대리모라 하기도 한다.²⁾

그동안 웅녀의 신격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최남선·조지훈·김정학·이병도·나경수 등은 곰과 호랑이를 북유럽·북아시아·북아메리카에 널리 퍼져있는 조령송배, 동식물송배와 같은 토테미즘이라 하고 구체적으로 국신족의 여성이라고 주장한다.³⁾ 신은희·이지영·나경·나경수·정호완·양주동·김종문·장윤수 등은 웅녀신화를 하늘아비와 땅어미 모양의 신화로 본다.⁴⁾ 앞에서 ‘願化爲人’을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빌다’⁵⁾가

2) · 신은희, 「그 신비한 춤 단군신화에 나타난 성 상징주의」(『단군학연구』, 제 6호, 2002년) 14~15쪽.

· 최문형, 「단군신화의 여성상과 여성원리에 나타난 통일이념」(『단군학연구』, 제 4호, 2000년) 137~139쪽.

· 조현설, 「웅녀·유화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사, 2003년) 11쪽.

3) · 최남선, 「단군고기전석」(『단군신화연구』, 온누리, 1986년) 33쪽.

· 조지훈, 「동방개국설화고」(『단군신화연구』, 온누리, 1986년) 231쪽.

· 김정학, 「단군설화와 토테미즘」(『단군신화연구』, 온누리, 1986년) 71쪽.

· 이병도, 「단군신화의 해석과 아사달 문제」(『단군신화연구』, 온누리, 1986년) 47~48쪽.

·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교문사, 1993년) 79~80쪽.

4) · 신은희, 앞의 글.

· 이지영, 『한국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월인, 2000년) 15~17쪽.

· 나경수, 앞의 책.

· 정호완, 『우리말로 본 단군신화』(명문당, 1994년) 110~131쪽.

· 양주동, 『고가연구』(박문출판사, 1948년) 8~9쪽.

· 김종문·장윤수, 『한국전통철학 사상』(소강, 1999년) 39~40쪽.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⁶⁾라고 뒤친다면, 웅녀신화를 입문의례와 무당의 내림굿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황폐강·류동식·김열규·신은희·신경득 등은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사람 되기를 비는 모습을 초경을 치른 소녀들의 입문의례라고 하였다.⁷⁾ 김태곤·서대석·조홍윤 등은 웅녀와 단군을 무당의 내림굿을 거친 최초의 무당이라고 한다.⁸⁾ 양주동은 웅녀의 ‘熊’을 신성한 존재인 신(神) 혹은 왕(王)을 지칭하는 “곰, 곰, 검, 금”으로 보아 웅녀를 여신이라고 하였다. 이은봉은 호랑이가 산신이 된 것처럼 곰도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⁹⁾ 다시, ‘爲人’을 ‘사람다운 사람’ 또는 ‘사람다운 품’이품이라고 할 경우 웅녀는 ‘찢겨짐’과 ‘버려짐’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대지의 여신’, ‘생명의 여신’으로 재생·부활하게 된다.¹⁰⁾ 이렇게 거듭난 웅녀의 화소를 유희성

5) 이 경우, 爲는 ‘될 爲’인데 일정한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당하다는 뜻이었다. 앞의 경우는 爲人敏給(『史記』)이고 뒤의 경우는 皆爲殺戮(『史記』)이다.

6) 이 경우, 爲는 각주 5의 쓰임새와 같지만 ‘爲人’의 경우처럼 사람된 품이라 할 수 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6) 2766쪽에는 ‘爲人’을 ‘사람의 됨됨이’ ‘사람된 품’ ‘사람됨’이라고 하였다.

7) · 황폐강, 「단군신화의 한 연구」(『백산학보』, 제 3호, 1967년) 125쪽.

· 류동식, 「시조신화의 연구」(『단군신화연구』, 온누리, 1986년) 104쪽.

· 김열규, 『한국 민속과 문학연구』(일조각, 1975년) 81쪽.

· 신은희, 앞의 글.

· 신경득, 『출생의 비밀 그루같이 삶을 위한 씨뿌리기』(살림터, 2006년) 32쪽.

8) · 김태곤, 「무속상으로 본 단군신화」(『단군신화연구』, 온누리, 1986년) 147쪽.

· 서대석, 「『무당내력』의 성격과 의미」(『구비문학연구』, 제 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년) 27쪽.

· 조홍윤, 『한국의 샤머니즘』(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년) 13쪽.

9) · 양주동, 앞의 책.

· 이은봉, 「단군신화를 통해 본 천신의 구조」(『단군신화연구』, 온누리, 1986년) 167쪽.

10) 엘리야데, 『샤머니즘』(까치글방, 1992) 53쪽.

야쿠트 단골의 입무 과정은 ‘찢겨짐’과 ‘버려짐’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친다. 먼저 단골 후보자는 사지를 절단하고 살을 발라내는 찢겨짐의 의례를 거쳐 죽은 사람처럼 습도 거의 쉬지 않은 채 외딴곳에 누워 있게 되는데 이를 버려짐이라고 보았다.

모·알영신모·선도성모·아진의선·정건모주 등이 어떻게 이어받고, 곰설화로 가려 받으며, 서낭산신으로 내리받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검토과정에서 아내 중심적인 각시바치의 흔적이 어떻게 사라지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가늠하여 보기로 한다.

2. 웅녀신화를 이어받은 신모신화

안확은 1926년 일제 강점기 아래서 단군신화의 밑바디가 될 만한 고조선의 성격을 규명한 바 있다. 안확은 고조선을 크게 동조선과 서조선으로 갈라놓는다. 동조선은 만주와 한반도에 퍼져있는 민족으로, 부여·숙신·예맥·진국을 싸안고, 진국을 다시 마한·진한·변한으로 갈라놓는다. 서조선은 요양대야(遼陽大野)에 뿌리를 박고 한족(漢族)과 씨름하다가 마침내 한지에 깊이 들어가 살던 민족이니 그 하나는 부여로 들어가 예맥을 밀어내고 고구려를 세우고 남으로 내려가 백제를 세웠다. 또 하나는 청주(靑州)지방에서 크게 활동하다가 중원 남방으로 향하여 추수변지(推水邊地)에서 여러 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주황왕(周穆王)때 잠시 큰 나라를 세우게 된다. 기자조선이니 위만조선이니 하는 것이 모두 서조선과 관계가 깊다.

또, 안확은 서조선의 문화를 선(仙)사상이라 하여 동양의 중심사상으로 본다. 선사상의 중심지는 요양이요, 모든 선가와 도술가가 여기서 나왔으며 이러한 선사상이 동조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할 동안에 서조선족(西朝鮮族)은 선술(仙術)을 가지고 동방(東方)으로 넘어와 국업(國業)을 창설(創設)한 일도 만하니 그림으로 창업주(創業主)의 전설(傳說)은 모도 선설(仙說)로 화(化)하여서 고구려 시조(高句麗 始祖)도 선(仙)이요 신라 시조(新羅 始祖)의 전설(傳說)도 선(仙)이요 가야(伽倻) 탐라(耽羅) 등(等)의 시조(始祖)도 다 신선(神仙)의 설화(說話)러라. 그뿐아니라 지명(地名)도 역시(亦是) 그 편(便)것을 떼어 쓴 것이 만하니 삼한(三韓)의 한(韓)이라 한 것은 진(秦)의 동족(同族)이던 한인(韓人)들이 진국(辰國)에 와서 살므로써 역(譯)하여 한국(韓國)이라 한 것이요 구월산(九月山)도 등주

(登州)의 산명(山名), 평양(平壤)도 요양(遼陽)의 지명(地名)이요 의주(義州)도 역연(亦然)이라.¹¹⁾

안확의 주장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때 안확의 선사상은 유·불·선의 총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인 풍류를 말하는 것 같다.¹²⁾ 그리하여 고구려·신라·가야·탐라의 건국신화가 모두 신선의 설화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신라·가야·탐라의 건국신화 원형이 단군신화이므로 단군신화는 신선의 설화인 풍류도가 된다.

또한, ‘한국’도 진나라에 살던 한족이 진국(辰國)에 이주하여 산 데서 나온 말이고, ‘구월산’도 등주의 산명이 황해도 구월산이 되었으며, ‘평양’과 ‘의주’도 모두 요양의 지명이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진나라가 일어난 섬서성이나 등주가 모두 산동반도에 있었으며, 요양은 오늘날 요동을 말하므로 요동과 산동은 단군신화의 역사적 공간이 되는 셈이다.¹³⁾

신채호는 안확의 주장을 계승하여 ‘낭가사상’과 북평양설로 발전시킨다. 신채호는 최초의 왕검성이 오늘날 평양이 아니라 북평양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북평양은 어디일까.

양평은 한(漢) 요동군(遼東郡)의 군치(郡治)인즉 문반한(汶潘汗)은 곧 요양(遼陽)부근의 땅이며 연(燕)은 조선과 만반한(滿潘汗)으로 정계(定界)하였다가 한(漢)은 퇴(退)하여 패수(溍水)를 수(守)하였은 즉 패수(溍水)는 곧 요양(遼陽) 이서의 물이며, 동 지리지에 패수(溍水)가 반한현(潘汗縣)의 색외(塞外)에서 출(出)한다 한 바 금(今) 해성(海城) 현우락(軒芋瀾)의 고명(古名)이 패수(溍水)인즉 남락천(南樂泉)의 설(說)을 종(從)하여 패수(溍水)를 곧 패수(溍水)로 잡는 동시에 만반한(滿潘汗)을 곧 해성(海城) 동북, 요양(遼陽) 서남으로 잡음이 가(可)하며, 험독현주(險瀆縣註)에 험독(險瀆)을 조선 왕만도

11) 안자산, 「고조선민족의 2대별」(『동광』, 제 7호, 1926) 460쪽.

12) 『삼국사기』권 제4 신라본기 제4 24, 진흥왕 부분.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羣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13) 이러한 안확의 주장은 大汶口·龍山·紅山文化가 東夷文化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로 점차 확인되고 있다.

(王滿都) 즉 왕검성(王險城)이라 하였은즉 왕검성(王險城)인 험독(險瀆)은 금(今) 해성(海城)됨이 명백하거늘 이제 이천여 리의 기점을 찾지 않고 중점을 찾으며 만반한(滿潘汗)의 연혁(沿革)을 묻지 않고 그 위치를 억정(臆定)하며, 패수(溍水)와 평양의 관계적 지방을 버리고 패수(溍水)와 평양, 왕검성(王險城)의 연혁(沿革)을 억설(臆說)하려 하니 어찌 실제에 합(合)하랴.¹⁴⁾

위와 같은 신채호의 주장을 요약하면 ‘만반한(滿潘汗)을 곧 해성(海城) 동북, 요양(遼陽) 서남으로 잡음이 가(可)하며, 험독현주(險瀆縣註)에 험독(險瀆)을 조선 왕만도(王滿都) 즉 왕검성(王險城)’이라 할 수 있는데, 즉 험독현이 왕검성, 신채호가 주장하는 북평양이라는 것이다. 『사기』에는 ‘요동에는 험독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조선의 구 도읍지’라고 하였고, 『한서』지리지에는 ‘험독, 이것은 평양 시기 이전 고조선의 또 다른 수도가 있었던 곳’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험독은 고조선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초기 수도라는 말이 된다.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에는 ‘험독의 경계가 요하의 삼차하’에 있다 하였는데, 삼차하는 혼하·태자하·요하가 만나는 지점을 이른다. 『성경통지(盛京通志)』에는 ‘삼차하는 세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다까지, 이 일대 전체를 가리킨다 하였다. 그러니까, 삼차하를 경계로 삼은 험독은 해성과 개주가 된다.’¹⁵⁾

이러한, 안확·신채호의 주장을 따원코우·용산·홍산문화의 주인공이 배달겨레[東夷]라고 보는 안금槐·曹桂岑·楊東晨·孫作雲·唐蘭·高廣仁·嚴文明·龔維英등에 의하여 방증되고 있다.¹⁶⁾ 또, 김인회는 배달[東夷]문화의 특징을

14) 신채호, 평양패수고(平壤溍水考) (『단재 신채호 전집·하』, 을유문화사, 1972) 49쪽.

15) 신경득, 앞의 책, 36~37쪽.

16) ·안금槐, 「試論河南龍山文化與夏商文化」, 『中國考古學第 次年會論文集』, 河南省 文物研究所, 1993

·曹桂岑, 「河南淮楊平糧臺龍山文化古城考」, 『華夏文明』, 1989

·楊東晨, 「東夷的發展與秦國在西方的復位」, 『中南民族學院報』(哲學社會科學版), 1989 第5期(總第三十八期)

태양숭배를 기반으로 한 새숭배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신앙과 신화, 삼죽기, 규, 도존문자, 돼지사육, 편두, 발치, 구함구습속 등으로 보고 있다.¹⁷⁾

그러면 신채호가 말하는 낭가사상이란 무엇인가.

낭(郎)은 곧 신라의 화랑이니 화랑은 본래 상고소도제단(上古蘇塗祭壇)의 무사(武士) 곧 그때에 「선비」라 칭하던 자인데 고구려에서는 조의(皂衣)를 입어 조의선인(皂衣仙人)이라 하고 신라에서는 미모를 취하여 화랑이라 하였다. 화랑을 국선, 선랑, 풍류도, 풍월도 등으로 칭하였다.¹⁸⁾

신채호가 주장하는 낭가란 고구려의 선배제도를 모체로 발전한 신라의 화랑제도를 말한다. 선배의 근원은 상고소도제단의 무사로 당시의 선비이며 신라에 이르러서는 미모를 취하여 화랑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낭가란 ‘상고소도제단의 무사’ 신공에서 하늘에 제사를 맡은 무(巫), 즉 단골을 말한다.¹⁹⁾ 김태곤은 단군신화와 「성주풀이」류의 성주무가가 원형적 형태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성주무가」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²⁰⁾ 서대석은 규장각본 『무당내력』을 분석하면서 감응거리가 거리가

· 孫作雲, 「中國古代鳥氏族諸尊長考」, 『中國學報』 3卷 3期, 1945
· 唐蘭, 「從大汶口文化的陶器文字看我國最早文化的年代」, 『大汶口文化討論文集』, 齊魯書社, 1979.
· 高廣仁, 「大汶口文化的社會性質與年代」, 『大汶口文化討論文集』, 齊魯書社, 1979.
· 嚴文明, 「膠東原始文化初論」, 『山東史前文化論文集』, 齊魯書社, 1986.
· 嚴文明, 「龍山文化和龍山時代」, 『文物』, 第6輯, 1981.
· 龔維英, 「論東夷族團的分化及吳陶族的南徙」, 『江漢考古』 第1輯, 1989.

17) 김인회, 「두개변형과 무의 통천의식」(『東아시아古代學』, 제15집, 2007) 431쪽.

18) 신채호, 「조선역사상 일천년내 제일대사건」(『단재 신채호 전집·하』, 을유문화사, 1972) 101쪽.

19) 조홍윤, 앞의 책, 13쪽.

단골은 알타이(Altai)어로 천신(天神)을 나타내는 텡그리(Tengri)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고 텡그리와 단군(檀君)과 단골이 모두 같은 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조홍윤은 단골이 단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본다.

20) 김태곤, 「무속상으로 본 단군신화」(『단군신화 연구』, 온누리, 1986) 147쪽.

단군을 모시는 곳거리고 제석거리는 단군의 신하 고시례를 모시는 곳거리이며 대거리나 별성거리는 중국에 가는 사신을 모시는 곳거리라는 지은이의 주장을 환기한 바 있다.²¹⁾

보통, 단군신화 가운데 ‘願化爲人’을 성인의례라고 하는데 반하여 조홍윤은 특이하게도 이를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내림굿 과정이라고 한다.

이 신화에서 웅녀가 사람으로 되고 천신과 결합하는 과정은 흥미롭게도 무당의 내림굿의 구조를 보인다.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은 채 백일의 수련을 겪는 것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내림굿 과정으로 흔히 보고되는 바, 무당 후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죽음의 체험을 맛보는 것과 동일하다. 동굴은 재생(再生)을 위한 죽음의 상징이다. 그리하여 태어난 웅녀는 이제 무당, 아니 첫 무당이다. 그리고는 천신 환웅과 결합하는데, 그것은 몸주 신령으로 모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첫 무당 웅녀가 천신의 감응을 받아 태어난 단군도 무당이다.²²⁾

따온 글에서 웅녀는 격리라는 버려짐과 죽음 체험이라는 찢겨짐을 통하여 첫 무당으로 재생 부활한다고 조홍윤은 주장한다. 무당인 웅녀가 낳은 단군은 제사장인 천군, 즉 무당이 된다. 그런데, 단군은 죽어서 산신이 되었지만 웅녀는 죽어서 무엇이 되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웅녀도 단군처럼 산신이 된 것일까.

무당집 문 앞에는 붉은 천과 흰 천을 매단 천왕기 또는 서낭기가 꽂혀 있다. 이 깃발은 환웅천왕이 소도에 꽂았던 모(旄)라는 깃발에서 유래한다.²³⁾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의하면 10월 상순에는 국중대회를 열어 둥근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땅에 제사지내기 위하여 방구단을 만들었다. 각목을 세우고 아버지에게 제사지내며 그리고 산에 웅상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소도에 환웅천왕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를 웅상이라고 하였다.

21) 서대석, 『『무당내력』의 성격과 의의』(『구비문학연구』, 제 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27쪽.

22) 앞의 책, 14쪽.

23) 조성제, 『무속에 살아 있는 우리 상고사』(민속원, 2005) 89쪽.

11세 단군 도해 제위 57년 경인원년 황제는 오가에 명하여 12명산의 가장 뛰어난 곳을 골라 국선소도를 설치하였다. 단수를 많이 둘러 심고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환웅의 형상으로 모시고 제사지내고 웅상이라 이름하였다.²⁴⁾

『태백일사』에는 소도에 실제로 환웅상을 새겨 모셨다 하였고, 『환단고기』에는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환웅상으로 받들고 제사 지냈다고 하였다. 이는 단군 신화 가운데 ‘환웅이 신단수로 내려왔다’에 근거를 둔 하늘나무 숭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환웅은 웅상으로 견제하지만 아직도 웅녀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다. 또, 『산해경』 해외서경에는 숙신국이 백민의 북쪽에 있는데 이름을 웅상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 성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나무에서 가족이 나와 옷을 해 입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는 웅상의 가족옷을 입힌 형상을 보고 나무에서 가족이 나온다고 과장한 듯하다.²⁵⁾

강릉 단오제 가운데 ‘신목베기’와 ‘여서낭모시기’는 웅녀의 행방을 알려줄 단서가 될 것이다. 성황사의 유교식 대관령 국사서낭제가 끝나면 무당이 들어서서 부정거리와 서낭모시기 굿을 한다. 무녀들이 성황사 앞마당을 돌며 지신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신목을 잡을 신장부가 서 있다. 신장부가 성큼성큼 산을 올라 양팔을 힘차게 내뻗은 것처럼 생긴 단풍나무를 잡아 별안간 나무는 떨리기 시작한다. 무당이 제금을 치고 신 내림 굿을 하는 가운데 제관은 툭으로 신목을 벤다. 신장부가 신목을 모셔들고 산을 내려와 대관령 국사성황사 앞마당에 좌정하면 무녀가 신이 내리는 장소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 부정거리를 하고 또 신을 위해 축원굿을 한다. 간단한 굿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투어 홍색, 청색의 오방색 예단을 신목에 걸며 소원성취를 빈다. 예단에는 기원자의 생년월일이 적혀있다. 예단을 매고 나면 무녀가 대관령 국사서낭님에게 “대관령 국사여 성황사로 가자”며 인도한다. 대관령 국사서낭신 위패가 맨 앞에 서

24) 『환단고기』, 단군세기.

十一世 檀君 道奚 在位五十七年 庚寅元年(紀元443年) 帝命五加擇十二名山之最勝處 設國仙蘇塗 多環植檀樹 擇最大樹封爲桓雄像而祭之名雄常

25) 『산해경』, 해외서경.

肅慎之國在白民北 有樹名曰雄常 先入伐帝 于此取之

고 그 뒤에 신목, 제관과 무격들이 뒤따른다. 신목 양쪽에 흰 천을 매고 제관이 앞서 걷는다.

학산서낭제를 지낸 서낭님은 국사여서낭당으로 간다. 머리를 땅아 내린 고운 처녀의 그림이 있는 여서낭당 안에 나란히 두 분의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고는 유교식으로 제례를 올린다. 이것을 봉안제라 한다.

드디어 묘연하던 응녀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국사여서낭당에 모셔진 고운 처녀가 바로 응녀의 화신인 것이다. 응녀는 산신이 되어 서낭에 숨어있었다. 그러니까, 환웅도 응녀도 단군도 모두 산신으로 좌정하였다. 단군신화에서는 응녀가 환웅을 찾아갔지만 강릉 단오제에서는 환웅이 암 서낭을 찾아간다. 이는 아래와 같이 검증된다.

알타이 무당은 자작나무 가지에 두 가닥의 실을 거는데 이는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비는 의례이다.²⁶⁾ 또한, 알타이 무당은 불을 피우는 향나무의 종인 일종인 아르퀸을 흰 실로 묶어 보관하는데 이는 정화의식으로 볼 수 있다.²⁷⁾

이러한 나무 숭배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알타이 등지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기원의례라고 할 수 있다.

시베리아 브리야트 인들은 강릉 단오제에서 행하는 ‘신목배기’, ‘여서낭모시기’와 유사한 의례를 행하고 있다. 성별의식 전날 밤 끝은 자작나무를 여러 그루 베어 그 중 가장 실한 나무를 천막 안에 세우고, 나머지는 입문의례가 행해지는 곳에 세운다. 베어온 자작나무 아래에는 제물이 놓이고 가지에는 백·청·홍·황의 땁기가 걸린다. 무당의 천막 안에 세워진 자작나무와 밖에 세워진 자작나무를 흰 색과 푸른 색 땁기로 연결한다. 이 땁기는 영신들의 땅인 천상계로 오르는 길인 무지개를 상징한다.²⁸⁾

브리야트 무당의 내림곳은 하늘나무인 자작나무에 오방색 땁기를 거는 것 등이 강릉 단오제와 서로 닮았다. 그러나 강릉 단오제에서는 천신이 신목으로 내려와 암 서낭을 찾아가는 반면에 브리야트 무당은 무지개의 상징인 땁기나

26) 이견욱 외, 『알타이 샤머니즘』(국립 민속 박물관, 2006) 355쪽.

27) 위의 책. 362쪽.

28) 엘리아데, 『샤머니즘』(까치글방, 1992) 125쪽.

하늘나무인 자작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다르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웅녀는 살아서는 단골이고 죽어서는 산신이 되었다. 웅녀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여 보기로 한다.

양주동은 『고가연구』에서 웅녀의 ‘熊’을 ‘곰’으로 보고, 이를 ‘모신’ 또는 ‘여신’이라고 하였다.

「곰」은 「김·검·곰·금」등으로 호전되는 「신(神)의 고어(古語)로 「왕(王)의 고훈(古訓) <니질금(尼叱今)·매금(寐錦)·내지 상감(上監)>에 인용(仍用)되었다. (.....) 그 어원(語原)은 「유현(幽玄)의 의(義)의 감·검」일 것이다. 단군(檀君)의 웅녀 탄생설(熊女誕生說) <유사권일(遺事卷一)·고조선권근웅제시주(古朝鮮權近應制詩註)>은 「곰·곰」의 유음(類音)에서 생긴 전설(傳說)이다. 「곰·검」은 「ㄱ-ㅇ-ㅇ」형(型) 음전(音轉)에 의하여 음·엄 내지 암·엄 등으로 호전(互轉)된다. 「개사수(蓋斯水)」(김늪)의 일명 「엄체수(淹遞水)·엄리수(淹利水)」(엄늪), 몇 수명(水名) 「염난(鹽難) (엄늪), 마한 오십사국(馬韓五十四國) 중의 「염로(冉路)」(엄늪), 삼국지명(三國地名)의 「아막성(阿莫城)·모성(母城)」(암젓)등은 모두 「곰」의 전 「엄늪」 등이다. (.....) 이로써 우리는 모(母)·자(雌)·아(芽)·아(牙)·무(拇) 등의 훈(訓) 「암·엄」(암·엄)의 궁극적(窮極的) 어원(語原)이 「곰」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곰」이 실로 여신(女神)임을 알만하다.²⁹⁾

양주동의 주장을 쉽게 풀어 정리하면 이러하다. 「곰」은 「곰」에서 호전된 「신」의 고어로 「곰」은 왕의 고훈인 「니질금·매금·내지 상감」에 그대로 쓰였다. 그러므로 「곰」이라는 말에는 신의 의미와 왕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곰」의 어원은 「유현」이라는 의미의 「감·검」일 것이다. 『삼국유사』권일과 고조선 권근 「웅제시주」에 나오는 단군이 웅녀에게서 탄생했다는 이야기의 「곰」은 「곰」과 유음으로, 「곰·검」은 「ㄱ-ㅇ-ㅇ」형 음전에 의하여 음·엄 내지 암·엄 등으로 호전된다. 이것은 「개사수」(김늪)를 일명 「엄체수·엄리수」(엄늪)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물 이름인 「염난」(엄늪), 마한 오십사국 중의 「염로」(엄늪), 삼국지명의 「아막성·모성」(암젓)등에 나오는 「암·엄」도 모두 「곰」이 바뀐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곰」이 「모·자·아·아·무」등의 훈 「암·엄」(암·엄)의 궁극적 어원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곰」이 모신, 즉 여신이라는 것이다.

29) 양주동, 앞의 책.

땅어미인 웅녀는 하늘아버인 환웅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단군을 출산한 생명의 여신이 되고, 다시 단골로 변신하여 산신인 암 서낭으로 좌정함으로써 대지의 여신이 되었다. 이러한 웅녀신화의 화소가 유화성모·서술신모·아진의 선·알영성모와 정견모주의 신화로 어떻게 이어받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약탈혼을 당한 유화는 해모수로부터 버림받는다. 화백이 술 취한 해모수를 유화와 함께 가족 부대에 넣어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려 하였으나 술이 깬 해모수는 유화의 금비녀로 가족부대에 구멍을 뚫고 태양신답게 빠져나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만다. 분노한 화백이 유화의 입술을 잡아당겨 석 자나 되게 하여 우발수에 던져버린다. 우발수에 버려진 유화는 어부 강력부추의 어랑 속 물고기를 훔쳐 연명을 하게 된다. 유화는 버려짐과 찢겨짐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햇빛을 받고 주몽을 잉태하니 생명의 여신이 된다. 또한, 유화는 목축과 농업을 주관하는 대지의 여신이다.

어머니의 생산신격을 이어받은 주몽은 활과 채찍을 통하여 황천에 이르고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리며 갈대를 이어 다리를 놓고 거북을 뜨게 한다. 주몽은 수렵과 목축을 주관하며 농업과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다. 하늘이 황룡을 보내니 왕이 홀본 동쪽 산등성이에 이르러 용의 목을 타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갔다. 동명성왕은 드디어 천신이 된 것이다.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니 이곳의 소서노라는 미인이 아버지 연타발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해부루왕의 서손 우태의 아내가 되어 비류·온조 두 아들을 낳고 우태가 죽어 과부로 있었는데 나이 서른일곱이었다. 주몽을 보자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는데 주몽은 그 재산을 가지고 뛰어난 장수 부분노 등을 끌어들이고 민심을 거두어 나라를 경영하여 홀승골의 산 위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가우리'라 하였다. 주몽의 각시바치적 면모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김부식이 이자량을 따라 송나라에 갔다가 부군 없이 아기를 뱀 제실의 딸이 쫓겨나 진국에 들어가 선도산 성모가 되었다는 말을 관반학사 왕보로부터 듣게 된다.³⁰⁾ 또, 『삼국유사』에는 선도성모가 황제가 보낸 소리개를 따라 선라

30) 『삼국사기』, 권 제12 신라본기 제12, 경순왕 부분.

선도산에 좌정하여 지선이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³¹⁾

박혁거세와 알영의 사실상 어머니인 서술성모는 두 아기를 우물가에 버린다. 박혁거세는 양산 아래 나정에 버려지고 알영은 사랑리 알영정에 버려진다. 박혁거세 신화에서 서술성모가 사라진 것은 박혁거세와 알영이 오누이로 근친 혼을 하였다든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장치에 불과하다.

일찍이 서술신모가 제천의 선녀에게 비단을 짜게 하여 붉은색으로 물들여 남편에게 입혔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서술신모의 직녀적 성격을 드러낸다. 서술성모가 경명왕의 잃어버린 매를 찾아주었다는 것은 천신·산신·수렵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술성모가 안홍사 불사에 시주를 하고 점찰법회를 열라고 지시한 것은 불교나 무속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함께 아울러냄으로써 일연의 말대로 부처를 뵈고 옥황이 된 것이다. 서술신모를 사소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사바세계의 중생을 소생시키는 자'라는 뜻이니 바리공주처럼 생명의 여신이고 무조의 시조인 셈이다. 서술신모는 노고할때나 마고할때처럼 산신이면서 무당이다.

알영신화에도 또한 '태양의 딸' 신화소가 보인다. 사랑리 알영정 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편 갈비에서 동녀 하나를 탄생하니 자태와 얼굴은 유달리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혹은 용이 나타나 죽으며 그 배를 갈라 동녀를 얻었다 한다. 알영이 '계룡'의 '왼편 갈비'로 탄생하였으며,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한인의 머리 모양은 납작머리(扁頭)였다고 한다. 진한인은 아이를 낳으면 머리를 돌로 눌러 납작머리를 만들었는데 이는 진한인이 태양조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얼굴 전면이 새의 부리처럼 튀어나오는 모양새인 것이다.

'알지', '알영', '아리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국유사』에서 '알지'는 '소아'를 말한다 고 하였다. 여기서 소아는 '소동'을 말하며 소동이란 '씨 아이' 또는 '씨 혼령'을 말한다. 따라서, '알지', '알영', '아리영' 등은 '씨알', '알맹이', '송

31) 『삼국유사』, 권 제5 감통 제7, 선도성모수희불사 부분.

아리'의 상징체계로 농업사회의 대지신화소를 지니고 있다.

박혁거세신화는 주몽신화처럼 해·물·땅에 관한 이야기이다. 천신의 아들인 박혁거세와 수신의 딸인 알영이 혼인함으로써 농업생산신적 신화소를 보여준다. 실제로 박혁거세와 알영은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하고, 농토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알영신모의 곡신적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아진의선은 아진포에 사는 박혁거세의 고기잡이 할미였다. 어느 날 바다 위에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듣고 포구에 도착한 배를 보게 된다. 아진의선은 밧줄을 매어 배를 포구로 끌어올린다. 수림 밑에 둔 채 길흉을 알지 못하여 하늘을 향해 고하였다. 조금 있다가 껍을 열어 보니 단정한 남자와 아울러 칠보와 노비가 나왔다. 이레 동안 대접을 받은 석탈해는 자신이 용성국 사람임을 밝히고 지팡이를 끌며 토함산에 올라가 석충을 만들고 이레 동안 머물며 살만한 곳을 찾는다.

이러한 아진의선 신화는 웅녀와 단군, 유화와 주몽, 서술신모와 알영이 모자와 모녀였던 것처럼 단순한 대모관계가 아니라 모자관계임을 밝혀준다. 여기서 까치는 태양신으로 아진의선과 감응관계를 암시한다. 자연스럽게 아진의선이 끌어 올린 밧줄은 뱃줄이 될 것이고 또한 배는 '船'이기도 하고 '腹'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석탈해는 아진의선의 아기집에서 출생한 씨 아이인 셈이다.

아진의선이 석탈해에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골격과 관상이 특이하니 마땅히 학문에 종사하여 공명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머니가 아들을 훈육하는 태도와 똑같다. 한편, 석탈해는 고기잡이를 하여 어머니를 섬겼는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다.

아진의선은 유화나 서술신모처럼 석탈해의 대모이다. 아진의선은 박혁거세의 고기잡이 할미로 아진포에 근거를 두고 해산물을 경영하여 선단을 구성할 만큼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보인다. 석탈해는 사실상 아진의선의 부와 도움에 힘입어 권력의 중심부에 진출하게 된다. 아진의선의 성격은 어업에 종사하는 수신으로 보인다. 수신과 지신은 동격이다. 아진의선 역시 출생을 담당한 대지의 어머니이고 바다를 관장하는 생산신이다.

술수와 책략을 써서 권력의 중심부에 섰던 석탈해는 죽어서도 호들갑을 떨며 동약신이 된다. 왕이 죽어 소친구에 장사를 지냈는데 신조가 있어 그 뼈를 소상으로 만들어 췌내에 두었으나 다시 현몽이 있어 동약에 묻고 제사 지냈다.

가야산은 옛적부터 정견모주라는 산신이 머무는 신령스런 산으로 여겨왔다. 대가야와 금관국의 시조 이진아고왕과 수로왕이 모두 산신 정견모주의 아들이라고 한다. 가야산이라는 이름도 가야제국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³²⁾

정견천왕사(正見天王祠)는 합천 해인사에 있는데 속설에 대가야국 왕후 정견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다.³³⁾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29권 고령현 부분에는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에 가야산신 정견모주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에 응감한 바 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의 왕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 하나 허황하여 믿을 바 못 된다 하였다. 『석순웅전』에 대가야국의 월광태자는 정견의 10대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이뇌왕인데 신라의 영이찬 비지배의 딸에게 청혼하여 태자를 낳았으니 이뇌왕은 뇌질주일의 8대손이라 하였으나 그것도 참고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³⁴⁾

정견모주는 다른 신모처럼 천신과 감응하여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왕이 되었으며 정견모주 역시 산신이 되었다. 원래, 정견모주는 가야산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정견천왕사에 봉안되어 모셔진 듯한데, 현재 합천 해인사에는 정견모주의 사당은 없어지고 그 대신 국사당에 붉은 주의를 입은 긴 수염의 산신이 봉안되어있다.

32) 『합천군지』(합천군지편찬위원회, 1981) 703쪽.

3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0권 합천군 부분.

正見天王祠 在海印寺中 俗傳大伽倻國王后正見死爲山神

3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29권, 고령현 부분.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成 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官國王惱室青裔二人 則惱室朱日 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卯之說俱 荒誕不可信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求婚于新羅迎夷蔡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3. 웅녀신화를 가려받은 곰설화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되는 정백동 92호 무덤에서는 전체 길이가 11.1cm인 장식 띠고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왼손을 쓰는 신성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 띠고리는 해를 상징하는 붉은 수정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몸체가 구름모양이고 대가리가 용모양인 하늘신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제 막 새끼용은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밑에는 물을 휘감으며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어미용이 묘사되었다. 주인공은 우측에 배치된 곰인 듯한 짐승을 타고 가는 여성이다. 등이 활처럼 굽어 있으며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고 왼손을 힘차게 뻗어 전방을 가리키고 있다.

띠고리 상단의 하늘용은 친신인 환인이며 새끼용은 환웅으로 보인다. 곰을 탄 여인은 웅녀를 상징한 듯하며 물을 휘감고 있는 용은 단군의 기백을 형상화한 듯하다. 최초의 인간탄생을 환상적으로 집약한 유물이다.³⁵⁾

기원전 1세기 정백동 92호 무덤에서 발견된 장식 띠고리에는 웅녀신화를 신비롭고도 환상적으로 변이전승하고 있다. 웅녀신화에는 초경을 치른 곰 토렘 부락의 소녀와 호랑이 토렘 부락의 소녀가 성인의례를 치르기 위하여 환웅천왕이 다스리는 소도로 들어와 같은 동굴에 머물러 있다. 두 소녀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이다. 그들은 햇빛과 바람을 피하여 온전한 싹을 틔우기 위해 캄캄한 동굴 속에 유폐되어 있다. 두 소녀는 환웅천왕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빌었다. 두 소녀는 성인의례를 치르기 위한 통과례를 절차를 거치게 된다.

드디어 웅녀는 찢겨짐과 버려짐 이라는 통과례를 거쳐 생명의 여신으로, 무당으로 재생 부활하였다.

웅녀신화에 관한 입말 이야기는 모두 4편이 전해진다. 유몽인 『어우야담』(1622),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1958), 류중선 『영남의 전설』(1971), 김군태·강현모 『부여의 구비설화』(1995) 등에 곰설화가 실려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35) 신경득, 앞의 책, 19쪽.

곰설화는 생명에 대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화소는 사라지고 찢겨짐과 버려짐이라는 단락만을 가려받고 있다. 곰설화에 나타나는 파국적 결말이 곰과 인간에 관한 영원한 찢겨짐만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선, 유몽인의 「암곰과 살림 차린 인제 백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곰설화를 화소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가정 연간에 강원도 인제 백성이 산속에 들어갔다 곰을 만났는데 곰이 그 백성을 발로 눌러 꼼짝도 못하게 하므로 백성은 곰의 음부를 긁어 주니 곰은 좋아하며 벌떡 눕는지라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곰은 백성을 굴속으로 끌고 들어가 밖으로 나갈 때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과일을 따다 주어 배불리 먹었다.

B. 곰이 신물이라 말을 알아듣는지라 백성은 쌀밥 기장밥 등 먹을 것과 붓, 여름에 갈아입을 옷과 잘 때 덮는 이불 등이 없으면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하자 곰은 밥과 술 등 먹을 것과 명주·비단솜옷 등 입을 것과 가마솥과 그릇붙이 등을 이고 지고 와서 부자처럼 풍족하게 살았다. 사슴·돼지·노루·토끼 등을 사냥하여 오고 닭·개·소·양 등을 가져와 고기를 먹었으나 오직 칼과 날카로운 물건은 주지 않았다.

C. 백성은 곰을 아내삼아 굴속에서 고량진미를 배불리 먹고 좋은 옷과 따뜻한 이불 속에서 풍족하게 살았으나 굴 입구를 막아 놓은 돌만은 치워주지 않았다. 삼 년이 지난 뒤 백성은 따뜻한 말로 곰을 달래어 돌문을 열어 달라고 간청하니 문을 열어주었지만 백성은 도망치지 않았으므로 곰도 차츰 백성을 믿게 되었다. 백성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춘천에 사는 가족에게 안부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곰이 승낙하므로 그 틈에 백성은 도망하여 가족을 만난 뒤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통곡하였다.

D. 곰이 돌아와 보니 백성이 없는지라 밤낮없이 사흘 동안 온 산을 돌아다니며 울 부짖다가 산 가까이에 있는 촌락을 부셔 버리고 마침내 음식 먹는 것을 끊고 죽어버렸다. 백성은 굴속에서 재물과 그릇붙이를 가져와 부자로 살았다.

E. 유몽인 처가의 계집종 남편 김윤이 원주 향리로 있었는데 이를 부러워하였다. 김윤이 산속에 들어갔다 곰이 음부를 드러내놓고 누워있는지라 범하려 하자 곰이 혀로 김윤을 핥아 뼈가 드러나 죽었다. 혹은 곰이 김윤을 굴속에 가두고 살을 핥아 뼈가 드러나면 다시 약을 발라 살이 돌아나게 하여 다시 핥아버리므로 마침내 죽고 말았다.³⁶⁾

36) 유몽인, 『어우야담』, 보유편, 암곰과 살림 차린 인제 백성.

嘉靖中 江原道麟蹄縣民 入山採樵遇玄熊 熊乃壓其民 堅臥移晷 民仰見其陰如女人 以瓜瓜之 良久 熊乃喜甚 頽然而臥 持民不釋 民始媿男女之懼 熊大愛之 拿入窟中 積大石爲壘 幽之如狴牢 每出 便舉大石如屋者 杜其口 聚細草爲籍 摘山中白果與之多珍異饒其飢 數日 熊亦神物也 能曉人語 民曰 吾居家食稻梁魚肉 衣繭絲麻綿春

유몽인은 꿈설화를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처럼 기록하고 있다. 명나라 연호인 '가정'을 사용한다던지, E단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몽인 처가의 계집종 남편 김윤이 겪은 꿈과의 관계 따위를 서술한 것 등이 그것이다. 꿈설화의 기본화소는 이물 교환담이다. 꿈이 여인으로 환생하지 않고도 인제 백성과 꿈은 교환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응녀설화를 가려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몽인의 심층심리에는 은근한 꿈송배가 바탕으로 깔려 있다. 인간은 잔혹하고 교활하며 신물인 꿈은 오히려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것이 유몽인의 세계관이다. 인제 백성은 꿈에게 잡혀 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꿈을 이용하여 인간 세상에서나 누릴 법한 풍요하고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꿈이 백성을 믿는 순간 교활하게도 자신은 고향집으로 도망을 칠 뿐만 아니라 꿈이 죽고 나서도 꿈이 모아들인 온갖 기명을 가져가 부자로 산다. 이를 부러워한 김윤은 인제 백성을 흉내 내려 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만다.

인제 백성이 도망간 뒤 꿈은 주변 촌락의 집들을 부셔버리는 포악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D화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밤낮없이 사흘 동안 온 산을 돌아다니며 울부짖다가 먹을 것을 끊고 마침내 죽어버린다. 이는 꿈이 인간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夏異服 夜臥有鋪有蓋 不食生物 烹飪有釜鼎 不食淡 有塩漿以調味 裁割以刀刃 無此許多物 吾病且死 丐汝幸出我生還 無令枯死嚴穴 自此之後 熊入村舍 偷掠黃梁白米 酒甕漿缸 如人立戴而來 如牛馬負馱而輸 紬衣綿襖綿褥綵衾釜鬲 器皿無不畢致 皆可用人間大小具 取足如富家 日得鹿豕獐兔及民間鷄狗牛羊之肉以餉 陸續不置 獨不及刀刃利物 民居窟中以熊爲妻 非但免飢寒 能致財用有裕 衣輕煖寢床褥 飽膏粱醉醇醪 列鼎珍羞 煙火而食 獨開閉在彼 還家望斷 居三年 知熊信無疑 乃溫辭說之曰 吾與汝雖異類 既爲夫婦 情愛獨融 無相疑貳 而石戶之防日益牢 出入不得自由 吾情甚悶塞 汝之出遊雖不杜戶 吾裝何往 自此 出戶不杜戶 良久而返 民猶不離掘穴 熊稍信之 民欲乘機逃走 恐其迫及 欲其行遠不復而逃也 詐謂熊曰 吾在春川清平山某村某家 父母兄弟俱在 而今絕音已三載矣 欲傳一書以探存沒 如熊以此書傳之否 熊領之 仍付一封書而送 度基遠 密走還家 家人初失民 謂入山採樵爲虎餌 服喪已三年 及至 咸驚走以爲鬼 民備陳顛末而後 相持痛哭 熊還視其窟 失其民 遍山狂吼 近山村落無不 毀破搜索如是三四晝夜 熊絕食自斃 民之財用器皿 取諸窟中所儲 峙而用之 終爲饒家 吾妻家婢夫原州鄉吏金允者 聞是事而慕之 嘗山行 見雌熊露其陰而臥 欲干之 熊警起 舐之骨出死 又云熊囚允穴中 刮肉骨出 塗藥生肌 復舐之 骨出終死云

설화의 배경인 강원도 인제는 설악산 품안에 안겨 있어 곰설화의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곰이 곰인 채로 사람과 교환하는 위와 같은 곰설화는 웅녀설화를 가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곰설화가 실제처럼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곰이 꼬리가 없고 직립 보행을 하여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곰은 앞발로 차양을 한 채 멀리 바라볼 수 있다. 곰의 생식기 및 어미곰의 유방은 사람과 비슷하다. 고대 오원 커족과 오르곤족의 신화 중에는 곰을 인격화시켜 사람으로서 성격을 부여하고 곰이 원래 사람이었다고 여기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한 내용이 있다.³⁷⁾

공주의 옛 지명은 웅진(熊津) 또는 웅천(熊川)이라 하였으니 곰나루 또는 고마나루 라고 하였다. 광개토태왕비에는 고모야라(古模耶羅)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웅천’에는 아래와 같은 곰나루유래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화소별로 정리하면 이렇하다.

A. 충청남도 공주 고을에 한 청년이 산에 놀러갔다 길 잃고 바위굴에서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처녀에게 먹을 것을 청하니 사슴고기와 과실을 주므로 이를 먹고 그날 밤 부부가 되었다.

B. 어느 날 청년이 처녀의 뒤를 쫓아가보니 곰으로 변하여 사슴을 쫓아 개울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겁이 난 청년은 도망을 치는데 처녀로 변한 곰이 뒤따라왔다. 처녀가 곰으로 변하여 산 아래로 청년을 쫓아오자 청년은 산 아래 강물로 뛰어드니 곰도 뒤따라 강물로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

C. 그리하여 이곳을 곰내·곰나루·웅주라고 부르게 되었다.

유몽인의 곰설화는 곰과 사람의 교환담인데 반하여, 최상수의 곰설화는 사람과 여자로 변신한 곰과의 교환담이다. 유몽인의 설화보다 최상수의 설화가 진보한 셈이다. 곰과 사람사이에는 아직 소생이 없고 곰만 강물에 빠져죽는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

37) 呂光天, 『北方民族 元始司誨 形態研究』(寧夏人民出版社, 1981) 271쪽.

김군태·강현모 「곰나루 전설 은 최상수의 그것처럼 곰이 각시로 변신하여 뱃사공과 인연을 맺고 새끼 두 마리를 둔다.³⁸⁾

곰은 기절한 뱃사공을 업고 굴속으로 들어가 벗섬 더미만한 큰 바위로 굴 입구를 막아 놓고 토끼 등을 잡아다 먹인다. 뱃사공이 곰과는 살 수 없다고 놓아달라고 하자 보름날 밤 곰이 백사장에 나아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봉황산 산신에게 사람 되기를 비니 마침내 처녀로 변신하였다. 곰과 뱃사공은 부부가 되어 새끼 두 마리를 낳고 살았는데 뱃사공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자 곰은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와 돌아오라고 권하였다. 뱃사공이 그냥 가버리자 곰은 새끼 두 마리와 함께 강물에 빠져죽는다. 곰이 죽고 난 후 천둥번개가 치고 풍량이 심하여 강을 건너지 못하므로 사당을 지어 죽은 곰에게 제사를 지내니 드디어 강물이 잠잠하여졌다.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되는 공주의 옛 지명인 웅진에 유독 지명유래를 말해주는 곰설화가 여러 편 발견되는 까닭은 알 수 없다. 앞에서 안확이 말한 바와 같이 요양의 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서조선이 부여의 예맥을 밀어내고 고구려를 세우고 남으로 내려가 백제를 세웠다면 고구려와 백제는 본래 문화가 같은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75년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개로왕은 전사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니 이 때, 웅녀신화 화소가 전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구비문화대계』에서 추려 뽑은 7편의 곰 관련 설화를 도표화한 것이다. A는 군산시, B는 의정부시에서 채록한 것이지만 모두 웅진의 유래담을 화소로 삼는 설화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C는 구례에서 채록된 구례의 곰설화이지만 화소는 웅진 유래담과 같다. D는 여러 가지 곰 관련 설화가 뒤섞여 있다. E와 F는 국내에서 출생한 곰 소생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유형이다. G는 해외 진출형 곰설화로 보인다.

38) 김군태·강현모, 『부여의 구비설화』(고병문화사, 1995) 57~60쪽.

제목	지역	말한이	듣은이	발표지
A. 고마나무의 유래	전북 군산시	이창섭	박순호, 이홍	구비문학대계(전북편) 37~38쪽.
B. 곱나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이형훈	조희웅, 김연실, 유지현	구비문학대계(경기편) 122~123쪽.
C. 구례 곱소에 관한 곱나무형 전설	전북 완주군 삼례읍	김영욱	최내옥, 김호선	구비문학대계(전북편) 781~782쪽.
D. 암곰과 살았던 백령도 도사	전남 신안군 증도면	강엽춘	최덕원	구비문학대계(전남편) 375~376쪽.
E. 사람과 곱의 아들인 이여송	충북 영동군 용산면	김동구	김영진	구비문학대계(충북편) 249~251쪽.
F. 곱이 낳은 자식	경북 성주군 대가면	박삼선	강은혜	구비문학대계(경북편) 227~228쪽.
G. 곱과 혼인한 노인	대구시	박현수	최정여, 천혜숙, 강애희, 정현숙	구비문학대계(대구편) 668~674쪽.

A에서는 청양군에 사는 나무꾼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공주군 산 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곱에게 업혀 굴로 들어가 3년을 사는 동안 새끼 3마리를 두게 된다. 새끼를 둔 곱은 나무꾼을 믿고 굴을 막은 바위를 치워주니, 나무꾼이 산을 내려와 나룻배를 타고 강 중간 썸 도망을 치는데 곱이 따라와 발을 구르며 날뛰었다. 굴로 들어간 곱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나와 나무꾼을 돌아오라고 새끼를 들고 소리를 질렀으나, 나무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룻배를 타고 가므로 새끼 3마리를 강물에 던지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곱과 사람의 교환담이라는 점에서 유몽인의 그것과 유사하며, 곱과 새끼가 모두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은 최상수의 그것과 같다.

B에서는 수곰을 잃은 발정함 암곰이 나무꾼을 끌고 가 바위로 굴을 막아 가둔 뒤 생고기를 먹이다가 새끼를 낳자 돌문을 열어놓는다. 나무꾼이 도망치는 부분은 A와 같고 암곰이 새끼를 던져 죽이고 스스로 바위를 받고 죽은 것

이 A와 다르다.

C에서 설화의 배경은 구례군 동방천 곶소에 나락 삼십여 석을 쌓아놓을 만한 바위로 놓은 고무다리이다. 괴양산에 사는 사람이 지리산으로 채약(採藥)을 하러 갔다가 바위 밑 굴속에 발정한 암곰을 만나 사람도 아니고 곰도 아닌 새끼를 낳고 살다가 도망을 친다. 채약꾼이 도망간 것을 안 암곰은 지리산에 올라 바위를 굴려 징검다리를 놓다가 지쳐 새끼를 끌고 와 돌아오라고 불렀으나 채약꾼은 못 본 척 숨어버린다. 새끼를 돌팍에 팽개쳐 죽이고 자신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와 같은 설화는 A와 B의 가려받음이나, 곰이 새끼를 죽이고 산 속으로 들어가는 화소는 전형적인 곰설화로 볼 수 있다.

D설화의 발단은 백령도에 살던 도사가 독한 것을 하다가 쫓겨나 무인도로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곰은 도사를 굴속으로 업고 들어가 살다가 새끼를 낳게 되자 도사를 굴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한다. 온 몸에 털이 난 도사는 밖에 나와 구경을 하다가 주낙배를 만나 도망을 치는데 암곰은 새끼를 바닥에 던져 죽인다. 뱃사람은 도사의 혀를 잘라 말을 못하게 한 다음 끌고 다니며 글씨를 쓰게 하여 돈을 버는데 우연히 마누라 할망을 만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설화는 여러 곰설화가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뜨내기장사치 이야기까지 덧붙여 진화가 심하다.

E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랑채에 홀로 누워 있다가 곰에게 업혀가 돌문이 있는 굴속에 갇히게 된다.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며 살다가 곰과 교환하여 이여승·여매·여백 등 삼남매를 두었는데 첫째의 청으로 곰이 돌문을 열어두자 삼남매를 데리고 성주로 돌아온다. 이여승을 본 집안형제들이 그냥 두면 역적이 될 터이니 죽이거나 다리병신 팔병신을 만들자고 하므로 삼남매를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간다. 삼남매는 도사에게 병법을 배워 과거에 급제하여 신종 때 우임제독이라는 벼슬을 하게 된다.

이 설화는 발단화소만 곰설화일 뿐 나머지는 지나치게 진화되어 곰설화로써 가치를 잃어버렸다. 주인공 이여승은 명나라 신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여승 인 듯 하며 임진왜란이 설화의 영향을 끼친 듯하다.

F에서 소금장수는 눈을 피해 바위 밑에 있는 굴로 들어갔다가 곰을 만나

이효식이라는 아들과 여식을 둔다. 곰이 사냥 나간 틈에 이효식은 아버지에게 산을 내려가 의주 압록강을 건너 대국으로 가자고 하였다. 아버지와 이효식이 압록강을 건너는데 뒤따라온 곰이 가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는지라 아버지가 뒤돌아보니 여식을 반으로 찢어 강물에 던져버렸다. 조선왕이 이효식을 조선으로 돌아오라고 하여 압록강을 건너는데 백룡으로 변한 곰이 이효식을 죽이려 하므로 백룡의 간을 내어먹고 조선에 왔다.

설화에서 발단화소인 소금장수와 곰의 교환하는 부분과 곰이 여식을 찢어 강물에 던지는 장면만 곰설화일 뿐 나머지는 지나치게 진화되어 곰설화로써 가치를 잃어버렸다.

G에서는 한 영감이 바닷가에 나갔다가 곰에게 업혀 태평양을 건너가 어느 산 동굴 속에서 살게 된다. 꿩이나 토끼 같은 짐승과 나무에 열린 과일을 날 것으로 먹다가 영감이 화식을 원하니 곰은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익혀 먹게 된다. 15년만 더 살면 곰은 산중왕이 될 것인데 곰이 영감에게 선달 그믐날 금수회의에 가자고 권하므로 따라갔다가 매년 금돈 한 냥씩 11냥을 얻게 된다. 곰과 영감사이에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산을 내려가 세상으로 가자고 청하고 돌갈로 나무를 다듬어 배를 만든다. 곰이 사냥을 나가자 영감과 아들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뒤따라온 곰이 금돈을 던져주며 가져가라고 하였다.

앞에 나온 설화처럼 곰과 사람 사이에 강물이 놓인 것이 아니라 이 설화에는 태평양이 가로막혀있다. 그러나 태평양은 장애물이 아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곰과 사람의 교환도 환상적이지만 이 설화에서는 곰이 주관하는 금수회의에 영감이 참여하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돈 11냥을 얻게 되는 황제는 가히 엽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곰설화에서는 산을 내려가 강을 건너 도망을 치는 사람에게 돌 사이에 출생한 새끼를 물에 던져 죽이거나 찢어 죽이는데 반하여 여기 나오는 곰은 오히려 금돈을 던져주고 자신은 산으로 돌아가고 만다. 곰이 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설화는 지나치게 진화되어 곰설화의 기본화소로 보기는 힘들다.

곰설화는 웅녀신화를 부분적으로 가려받고 있다. 이를 화소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웅녀신화에서는 꿈이 웅녀로 변하여 환웅과 혼인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설화는 최상수와 김근태·강현모의 설화만 그러할 뿐 나머지 설화는 꿈과 사람이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화소는 신화성을 잃어버린 채 현실적인 설화로 자리 잡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웅녀신화에서는 꿈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되기 위하여 3·7일을 삼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꿈설화는 엮어간 사내를 굴속에 가두고 바위돌로 굴 문을 막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웅녀신화의 금기를 가려받은 것이며 또한, 꿈과 사람의 교환을 합리화하는 보조 장치이기도 하다.

셋째, 웅녀신화에서 웅녀와 환웅이 혼인한 뒤 환웅은 소도로 돌아가고, 웅녀는 꿈 토렘마을로 돌아갔을 것이다. 꿈설화에서 꿈과 사람 사이에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은 뒤 꿈이 사냥 나간 틈을 이용하여 사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망을 치는데 이는 웅녀신화의 화소를 가려받은 것이다. 꿈이 새끼를 데리고 와 사람을 돌아오라고 하나, 그대로 가버리자 새끼를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찢어죽이거나 돌바닥에 던져 죽이고 자신도 강물에 빠져죽거나 혹은 산으로 돌아간다. 이는 찢겨짐과 버려짐이라는 통과의례를 통한 재생과 부활의 상징체계이다. 사람과 꿈 사이에 난 새끼는 물이나 땅에 묻혀야만 싹이 틀 수 있다. 그러니까, 꿈설화에서 죽는 것과 버려진다는 것은 모두 새로운 생명의 소생을 의미한다.

넷째, 강물을 사이에 두고 사람은 속세로 돌아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산으로 돌아간 꿈은 산신(山神) 즉 산신(産神)이 된다. 양주동은 꿈의 화신을 모신 또는 여신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웅녀신화에서는 모든 역할을 웅녀가 선택한다. 이는 어머니 중심 사회의 유습으로 꿈설화에서는 의식주문제를 모두 꿈이 해결하는데, 이는 각시바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화소를 봉화산의 처녀 꿈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기로 한다. 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고령 동쪽 낙동강 중류에는 고령철교가 있고 여기서 서쪽으로 해발 3백m 산이 있는데 산을 봉화산이라고 하며 옛날에 산꼭대기에는 큰 소나무 한그루가 있었다고 한다.

B. 소나무 아래서 백일동안 기도를 한 곰이 처녀로 변신 하였는데 사냥 할 때만 다시 곰으로 화신하였다. 어느 해 봄 사냥꾼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곰처녀를 보는 순간 안도감에 기절하고 말았다. 처녀가 물을 먹고 한참 기다린 뒤 정신이 든 사냥꾼은 처녀를 보는 순간 미모에 취하여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먹을 것을 청하였다. 처녀는 “먹을 것은 줄 수는 있으나 이 음식을 먹게 되면 평생 나와 함께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사냥꾼은 어이가 없지만 이를 수락하였다. 얼마 뒤 처녀는 맛있는 음식이 든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C. 근처 굴속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던 사냥꾼은 문득 부모처자가 그리워 처녀가 사냥을 나간 틈에 굴을 나와 산을 내려갔다. 먹을 것을 구하여 굴로 돌아온 여인은 사냥꾼이 없어진 것을 알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며 사냥꾼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자 소나무에 목을 매고 죽었다.

D. 지금부터 50년 전만 하여도 시집을 가고 싶은 처녀들이 그곳에 올라가 백일기도를 하였는데 기도를 하고 시집을 간 처녀들은 멀리 시집을 가야만 이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³⁹⁾

위의 곰설화는 윤색이 지나치고 진화가 심하여 원형을 더듬어 보기 힘들다. 설화의 발단은 곰이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 아래서 백일 동안 빌어 처녀가 되는데서 출발한다. 이는 웅녀신화가 서낭당 암 서낭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원래 서낭당은 산꼭대기에 있는 당상나무를 중심으로 돌무지를 쌓은 데서 유래한다. 설화에서는 죽은 곰의 혼령이 산신으로 소나무 아래에 좌정하여 기도하는 처녀들에게 효험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당상나무에 빌어 시집을 간 처녀들은 멀리 가야만 이혼을 당하지 않는다는 금기까지 붙어있다.

이제까지 웅녀가 모신, 또는 여신으로 화신하는 과정과 마침내 서낭당 암 서낭으로 좌정하여 마을 사람들을 수호하는 내력까지를 살펴보았다.

곰에 대한 숭배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랩족과 그 이웃의 우랄족을 비롯하여 동유럽 및 서유럽의 일부 나아가 러시아 내륙, 동북아시아 일대를 거쳐 에스키모 및 북미 인디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또한, 오원커·아이

39) 류증선, 『영남의 전설』(형설출판사, 1971) 451~453쪽.

누·오르곤족은 자신들의 조상을 곰이라고 하며 중동의 시리아를 세운 조상도 곰이라고 믿고 있다.

4. 웅녀신화를 내리받은 서낭 설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지리산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륙의 유산기에 “지리산은 또 두류산이라 칭한다. 영남·호남 사이에 웅거하여서 높이와 넓이가 몇 백 리인지를 모른다. 목 하나, 부 하나, 군 둘, 현 다섯, 속읍 넷이 산을 둘러 있는데 동쪽은 진주·단성이고 남쪽은 곤양·하동·살천·적량·화개·악양이며 서쪽은 남원·구례·광양이고 북쪽은 함양·산음이다. 높은 봉우리가 둘이 있는데 동쪽은 천왕봉이고 서쪽은 반야봉으로서 서로 거리가 백여 리나 되는데 항상 구름이 가리워져 있다. 천왕봉에서 조금 내려와서 서쪽에 향적사가 있고 또 서쪽으로 50리쯤에 가섭대가 있다. 대의 남쪽에 영신사가 있으며 서쪽으로 20여 리를 내려오면 넓게 트인 땅이 있는데 편평하고 비옥하여 세로 가로가 모두 6·7리쯤 뒹직하다. 간간히 하습하여서 곡식심기에 알맞다. 늙은 잣나무가 하늘에 치솟았으며 낙엽이 쌓여서 정강이까지 빠진다. 북편에 서서 사방을 돌아보면 끝이 없어 완전히 하나의 평야이다. 빙빙 둘러 남으로 내려오면 시내를 따라 의신·신흥·쌍계의 세 절이 있고 의신사에서 서쪽으로 꺾여서 20리 지점에 칠불사가 있다. 쌍계사에서 동쪽으로 재를 하나 넘으면 불일암이 있고 그 나머지 이름난 사찰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⁴⁰⁾

두류산이란 백두산이 흘러내려 가다가 이룬 산이란 뜻이니 지리산은 이름이다. 물론, 두류산과 백두산 사이에 태백산이 있으니 지리산은 백두산의 막내산

40) 『신증동국여지승람』제 30권, 진주목 부분.

李陸遊山記智異山又名頭流 雄據嶺湖南二路之交高廣不知幾百里 環山有一牧一府二郡五縣四附邑其東曰晉州曰丹城其南曰昆陽曰河東曰薩川曰赤良曰花開曰岳陽其西曰南原曰求禮曰光陽其北曰咸陽曰山陰 上有峯之最高者二東曰天王西曰般若相距百餘里常有雲氣蔽之 自天王稍下而西有香積寺又西五十里許有迦葉臺 臺之南有靈神寺西下二十餘里 有虛曠之地平衍肥腴縱橫皆可六七里 往往下濕宜種穀有老柏嶺天落葉沒脛 中虞而四顧無涯際宛然一平野 邈迤南下沿溪有義神新興雙溪三寺 自義神西折二十餘里有七佛寺自 雙溪東踰一嶺有佛日菴自餘名籃勝刹不可殫記

인 셈이다. 동쪽의 천왕봉은 1,915m인데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반야봉을 거쳐 노고단에 이른다. 노고단에는 남악사가 있고 남악사 아래 구례와 남원이 펼쳐진다. 또, 천왕봉에서 남쪽으로 촛대봉, 영신봉을 거쳐 삼신봉 아래 쌍계사가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 쌍계사 삼성각에는 천왕신모 셋째 딸 신상이 봉안되어 있다. 삼성각 중앙에는 독성이, 우측에는 쌍계신모 신상이, 좌측에는 대머리 산신상이 배치되어 있다. 쌍계신모 산신도는 가로 181.5cm, 세로 181.5cm로 정사각형이다. 논자는 이 신상을 ‘쌍계할매’ 또는 ‘쌍계신모’라고 부르곤 한다. 그 까닭은 뒤에 밝힌다.

신상의 한가운데에는 쌍계신모가 대나무 신목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바위에 앉아있다. 신모의 우측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신모의 좌측에는 신딸 두 사람이 서 있다.

산신의 사자로 여겨지는 호랑이는 지금 막 바위에서 내려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형상인데 늘어진 아래턱에 이 두 개가 보여 호랑이 얼굴은 해학적인 느낌을 준다. 갈색 줄무늬의 끈은 등선을 거쳐 꼬리는 말려있다.

신모는 황색 물방울무늬가 박힌 붉은 주의를 입고 있다. 신발은 옅은 남색으로 정면의 코만 보인다. 얼굴은 밝은 살구 빛으로 해처럼 둥글며 무던한 모습이다. 머리는 곧게 가르마를 타 내려 낭자머리를 하였는데 금비녀를 꽂고 있다. 귀는 부처귀이고 코는 볼이 넓어 호랑이 코이며 팔자주름이 선명하고 입술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다. 미간에 밝은 빛이 감돌고 있어 신모임이 확실하다. 쌍계신모가 산신이고 무당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두 손에 잡고 있는 대나무 신목이다. 나뭇가지에는 하얀 실이 걸려있는데 이는 강림한 신에게 바친 예단이다.

신모의 좌측 앞에 있는 신딸은 녹의를 입고 손에는 ‘대[竿]’를 잡고 있다.⁴¹⁾ 녹의를 입은 신딸 뒤에 청의를 입은 신딸은 곳에 쓰이는 초롱달린 창을 들고 있다.

41) 대(竿)는 손대·신대·신간(神竿)이라 하는데 곳에 하는 도중에 쌀에 꽂아두었다가 마지막 날 신의 뜻을 물어보는 대잡이로 쓰인다.

신모의 등 뒤에는 하늘나무인 소나무가 두 줄기로 갈라져 청청한 푸른빛을 하늘로 뻗치고 있다. 또, 신모의 좌우로 솟구친 연봉에는 두 줄기 물나리지가 아래로 물을 쏟고 있는데 이를 한자로 쓰면 ‘雙溪’가 되니 신모의 정체를 ‘쌍계할매’ 또는 ‘쌍계신모’라 부를 만하다. 이는 함천 해인사가 ‘정견천왕사’ 자리에 절을 지었던 것처럼 삼신봉 산신이었던 쌍계신모를 모시는 ‘쌍계신모천왕사’ 자리에 쌍계사를 지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말하자면, 뒤에 들어온 불교가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신모천왕사를 밀어낸 셈이다.

그렇다면, 쌍계신모는 누구의 딸이며 어디서 온 것일까. 어느 날, 범우 스님이 지리산에 입산하여 동굴 속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다. 수행을 마친 스님이 동굴을 나와 지리산 깊숙이 들어갔다 길 잃고 헤매게 되었는데 천왕할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말이 끝나자 복사꽃 같은 뺨에 칠혹 같은 머리카락, 반달 같은 눈썹과 물 먹은 입술의 천왕할매가 나타나 범우가 거처하는 동굴로 인도하였다. 동굴로 돌아 온 범우스님은 오직 천왕할매 생각뿐으로 혼인을 생각하게 되니 이를 측은히 여긴 천왕할매가 이를 허락한다. 두 사람 사이에 여덟 명의 딸을 두었는데 각 도로 흩어져 높은 무당이 되었다. 그 가운데 셋째 딸은 벽소령을 넘어 청학동 삼신봉을 거쳐 하동에 좌정하여 산신이 되었다.

위와 같은 하동군 설화와는 달리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지리산 고엄천사에 범우화상(法祐和尚)이 있었는데 홀연히 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상스럽게도 물이 불어 그 근원을 알고자 천왕봉 꼭대기에 올랐다가 키가 크고 힘이 센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스스로 성모천왕이라 말하고 인간 세계에 귀양 내려와 그대와 인연을 맺고자 물의 술법을 적용했다 하면서 스스로를 중매했다. 드디어 부부가 되어 집을 짓고 사는데 딸 여덟을 낳았으며 자손이 번식했다. 모두 무술(巫術)을 가르쳤는데 금방울과 부채를 쥐고 춤을 추고 아미타불을 창하고 범우화상을 부르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무업을 했다. 이 때문에 세속에서는 큰 무당은 반드시 지리산에 가서 성모천왕에게 기도해서 접신한다고 한다.⁴²⁾

42) 이능화, 『조선무속고』(동문전, 1991) 173~174쪽.

따은 글은 전통적인 무업과 외래종교인 불교가 어떻게 뒤섞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외래종교인 불교의 스님 범우화상과 전통적인 단골이요, 산신인 성모천왕과 혼인하여 여덟 명의 딸을 두고 그 딸들이 다시 팔도로 흩어져 아미타불을 부르는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은 갈등을 겪던 두 종교가 마침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천왕신모는 지리산 천왕봉에 좌정한 모신이고 산신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숭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구렁에 버려졌다가 목이 부러지는 수난을 겪던 신모는 지금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천왕사에 모셔져 있다. 신모의 모습은 하동에 좌정한 셋째 딸 쌍계신모와 닮아 무딘한 얼굴을 하고 있다.

성모상은 높이 74cm, 얼굴 너비 46cm, 몸 너비 43cm로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바른 손 주먹을 왼편 손바닥으로 싸잡고 있는 형상이다. 부처 귀에 코는 볼이 넓어 호랑이 코이고 작은 입술은 끈게 다물었으며 눈은 깊게 파여 있다. 얼굴의 전체 윤곽은 둥글어 원만하며 머리는 틀어 올려 쪽을 찌고 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천연선사’라는 이승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선사가 신모의 상을 부셔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지리산 천왕봉에 성황신(城隍神)이라 불리는 석조물이 있는데 원근에 사는 무격들이 그것을 높이 받들어 굴을 만들어 놓았으며 남방의 백성들이 귀신을 숭상하여 가산을 기울여 그곳에 쏟아 놓는다는 말을 듣고 천연이 홀로 손수 그 상을 쳐부수었다.⁴³⁾

유몽인의 진술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천왕신모를 얼마나 숭앙하였는지를 말해준다. 특히, 천왕신모를 ‘성황신’ 즉 ‘서낭신’이라고 부른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천왕신모는 단골이요 산신이며 서낭산신이다.

지리산의 산신은 여신인데 그는 거인이었다. 키가 36척에 다리가 15척이나 되었다. 그는 성모 또는 마야고, 마고라고 불리었는데 젊고 몹시 아름다웠다. 그는 손톱이 굉장히 길고 새의 부리처럼 날카로웠다.⁴⁴⁾

43) 유몽인, 『어우야담』, 천연선사 부분.

44)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문음사, 1986) 228쪽.

따온 글에는 천왕신모가 키가 큰 거녀이며 미인인데다가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다. 성모는 반야를 사랑하였는데 수 만년을 기다리며 나무밑동을 손톱으로 긁어 말려 죽였다. 나무껍질을 벗기던 성모는 껍질로 실을 뽑아 옷감을 짜고 반야의 옷을 한 벌 지었다. 이는 성모의 직녀신적 성격을 나타낸다. 성모는 반야를 기다렸으나 구름을 타고 지나가버리자 지은 옷을 찢어버리고 천왕봉에 좌정하여 천왕성모가 되었다.

따온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왕성모를 ‘마야고’ 또는 ‘마고’라고 부른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야고’나 ‘마고’는 ‘노고’라고도 한다. 노고단의 남약사를 짓고 신모를 제사지냈다는 기록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왕신모는 단골이고 산신이며 성황신이다. 또한, 천왕신모는 마야고·마고·노고이다.⁴⁵⁾ 천왕신모는 천왕봉에 좌정하였고 쌍계신모는 쌍계사에

좌정하였으며 마야고·마고·노고는 성황신으로 노고단에서 제사를 받는다. 이와 같은 지리산 산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격이 있다.

첫째는 신모로 하늘에서 내려와 출산과 생산을 담당한 생명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이다. 천왕신모가 보여주는 오줌 누기 화소는 풍요한 출산을 뜻한다.⁴⁶⁾ 범우화상과 혼인하여 여덟 명의 딸을 두었다든가, 반야를 수 만

년 동안 사랑하였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천황신모는 반야를 기다리며 나무껍질에서 실을 뽑아 길쌈을 하는데 이는 신모의 생산신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로 천왕신모는 단골이고 산신이다.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 화를 막고 복을 내리는 단골로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쌍계신모가 앉은 바위에 세 개의 머슴은 아마도 사람들이 신병을 치료하는 명약일 터이다. 쌍계신모 우측에 배치된 산신도에는 대머리 산신이 왼손에 염주를 들고 바른손

45) 마고설화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편의 논문이 있다.
·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한국 민속학』, 제 25집, 1993)
· 김인희, 「한·중 마고설화의 비교연구」(『관동민속학』, 제 14호, 2003)

46) 정형호, 「여성 방뇨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인식 변모 양상」(『동아시아 고대학』, 제 4호, 2001) 89~91쪽.

에 약초를 들고 있다. 그리고 천왕신모는 외적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이것이 화가 되어 얼굴에 칼을 맞기도 하였다.

셋째로 천왕신모는 마야고·마고·노고 할매인데 서낭신으로 마을을 수호하기도 한다. 한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곰’자가 든 지명은 옹녀화소와 천왕신모가 결합하여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곰’자가 들어간 지명은 땅 모양이 곰과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곰의 서식지이기도 하지만 옹녀의 화소를 내리받은 경우이기도 하다.⁴⁷⁾

쌍계신모가 범우화상의 구혼을 받아들이는 반면 천왕신모는 범우화상에 스스로 중매하여 옹녀신모처럼 각시바치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천왕신모의 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누구를 이어받아 천왕신모로 좌정하여 천왕신이 되고 마고할미가 된 것일까.

지리산 관문에 해당되는 산청군 산청읍에는 해발 1,099m인 웅석봉(熊石峰)이 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웅석봉을 달뜨기 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산 모양새가 곰처럼 생겼다고 해서, 또는 산에서 곰이 떨어져 죽었다고 하여 웅석봉이

47) 아래의 땅이름은 한글학회 편 『한국 땅이름 큰사전』(1991)에서 추려 뽑은 것이다.

· <강원도>곰내미(원주시 귀래리), 곰골(양구군 공리), 곡암동(철원군 화지리), 고깃골(평창군 노동리), 곰마을(정선군 여량리) · <경기도>고모리(화성시), 고무다리(안성시 웅교리), 웅골(여주군 점봉리), 고군뎡이 곰뎡이(평택시 죽리) · <충북>곰실(청원군 덕류리), 곰림이(증평군 율리), 곰쟁이(보은군 두평리), 곰말 곰바우(단양군 의풍리), 곰지골(충주시 사문리), 고목(제천시 선고리), 곰골(보은군 이원리), 고무실(보은군 학림리) · <충남>곰나루(공주시), 곰직이(천안시 미죽리), 곰실(서산시 고산리), 고무리(예산군 장북리), 곰개(당진군 삼봉리), 곰섬 웅도리(서산시 웅도리), 곰우리(예산군 화산리), 곰실마을 곰실이(예산군 화천리), 곰골(보령시 동오리), 고마나루 곰나루(충남 공주시의 옛 지명) · <경북>곰창(영덕군 화천리), 곰실(구미시 하장리), 곰지기(영양군 금학리), 곰정골(청도군 고평리), 곰실(청도군 안인리), 곰내기(김천시 신통리), 웅연 곰실이(울진군 정명), 곰수골(영주시 창락리), 곰우챙이(문경시 서중리), 고마실(안동시 금곡리) · <경남>곰골(사천시 두량리), 곰실(거창군 장팔리), 웅석봉(산청군 산청읍), 곰실(진주시 광석리), 곰우골(하동군 삼신리) · <전북>곰티(완주군 신촌리), 곰실(장수군 사암리), 웅동(익산시 송산리), 곰소(부안군 진서리) · <전남>고무골(여수시 나진리), 웅곡(곰실)(화순군 다곡리), 곰복(보성군 고죽리) · <양강도>곰산(삼지연군) · <평북>곰섬(철산군).

라고 부른다. 왜 달뜨기 산인가? 곰이 봄여름가을에 나타났다가 겨울에는 사라지는 것과 달의 이월고 참의 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바뀐랜드 단골들은 곰영신의 도움을 받아 달에 이른다고 믿고 있다.⁴⁸⁾ 달의 이월고 참이나 겨울에 사라졌던 곰이 봄에 나타나 여름과 가을에 활동하는 것은 단골의 입문제의와 같다.

웅석봉에서 곰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단골이 지하계나 천상계로 올라갈 때 보조영신 곰의 도움을 받는다.⁴⁹⁾ 또, 곰은 저승계의 울

창한 숲을 헤쳐 길을 내기도 한다.⁵⁰⁾ 이는 곰이 대지의 신이며 생명

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베리아와 알타이 단골들은 곰이 산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음체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단골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웅석봉에서는 곰을 토tem으로 믿는 단골들의 입문제의가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곰 위에 좌정한 것은 웅녀신모이다.

이제 지리산의 산신체계를 총화 할 차례가 되었다. 웅석봉에는 웅녀신모가 좌정하고 있다. 웅녀신모의 화소를 이어받은 것은 천왕산에 좌정한 천왕신모이다. 천왕신모의 셋째 딸은 쌍계사의 쌍계신모로 좌정하고 있다. 천왕신모의 화소를 내리받은 마야고·마고·노고 할미는 노고단에 좌정하여 민중들을 어루만지며 서낭신으로 좌정한 것이다. 그러면 지리산 천왕봉에 좌정한 천왕신모의 머리위에 있는 웅녀신모가 어떻게 웅석봉에 좌정한 것일까. 웅녀신모의 행방을 문헌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고구려의 수혈신에 대한 제사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라 동쪽에 큰 굴이 하나 있다. 이 굴은 이름을 수혈(隧穴)이라고 하는데 매년 10월이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수혈신(隧穴神)을 맞아가지고 동쪽 물 위로 와서 제사를 지낸다. 이 때 나무로 만든 신좌 위에 수혈신을 모신다.⁵¹⁾

48) 엘리야데, 앞의 책, 267쪽.

49) 위의 책, 100쪽.

50) 위의 책, 225쪽.

따은 글에 나오는 수혈신을 웅녀라 하기도 하고 유화라 하기도 하지만 웅녀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사실은 5·6세기 고구려 무덤벽화에 나타나는 곰 그림으로 확인된다.

각저총은 5세기 초엽 고구려 무덤이며 장천 1호분은 5세기 중엽 고구려 무덤인데 앞의 무덤에는 씨름하는 그림이, 뒤의 무덤에는 백가지 놀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각저총에는 씨름하는 두 사람의 장사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심판인 듯한 정장을 한 노인이 보이고 왼쪽에는 호랑이와 곰이 그려져 있다. 호랑이는 배나무를 등지고 서 있으며 나무 위에는 검은 새가 네 마리 앉아 있고 나무를 등지고 곰이 앉아 있다. 네 마리 검은 새는 까마귀인 듯하다. 장천 1호분에 그려진 백 가지 놀이 그림은 이름 그대로 하늘에서 연꽃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남녀노소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그림이다. 화폭 아래 좌단에는 곰이 굴속에 누워 있다. 한편, 고분 북벽에는 세 사람의 말 탄 사냥꾼이 각각 활을 겨누고 있는데 사냥꾼 맞은편에는 맨 위에 멧돼지, 가운데 노루, 아래쪽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사냥꾼을 향하여 달려가는 호랑이 등에는 화살이 꽂혀 있다. 그리고 사냥꾼이 서 있는 나무 밑둥 아래 한 마리 웅크리고 있는 곰은 사냥당하는 동물들을 구경하고 있다. 따라서, 장천 1호분 벽화에 나타난 곰은 사냥 대상이 아닌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고구려 사람들이 동명왕과 같은 시조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군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증한다.⁵²⁾

각저총무덤벽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세기 고구려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5세기 중엽 장천 1호분의 곰은 숭배의 대상이지만 호랑이는 사냥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뒤 『삼국유사』에는 몇 차례 호랑이에 관한 설화가 나타나지만 곰에 관한 설화는 아래와 같이 단 한 건만 나타날 뿐이다.

51)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 부분.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52) 신경득, 앞의 책, 23쪽.

대성은 장성하면서 사냥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토함산(吐含山)에 올라가 곰을 잡아 가지고 산 밑 마을에 유숙하였는데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시비를 걸며 내가 어찌서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으리라 하였다. 대성은 두려워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귀신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절을 세워 주겠는가” 하므로 대성은 맹세하여 좋다 하고 꿈을 깨니 땀이 흘러 자리를 적시었다.⁵³⁾

그래서 대성의 꿈에 나타난 곰이 산신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대성의 꿈에 나타난 곰의 위력으로 보아 토함산 산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김대성의 꿈에 관한 설화가 7세기인데 비슷한 시대에 말갈에도 곰과 호랑이에 관한 기사가 『위서』에 나타난다.

나라 남쪽에 태산이 있는데 위언에서 말하기를 태백산이라 한다. 거기에는 호랑이, 곰, 이리가 있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사람은 산 위에서 오줌 같은 것을 배설하지 못하며 그 산을 지나가는 자는 모두 물건을 치우고 간다.⁵⁴⁾

말갈은 본래 송화강 유역에 자리 잡은 소수민족인데 고구려가 멸망하자 영주로 이주하였다가 발해에 복속하였다. 안확의 말대로 말갈은 서조선이니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⁵⁵⁾ 따온 글에서 ‘태백산’이란 백두산이다. 말갈은 호랑이·곰·이리를 모두 동격으로 숭배하였을 뿐 곰을 특별히 숭앙한 것 같지는 않다.

고구려가 멸망한 7세기 이후 곰 토템은 말갈과 더불어 발해로 이월된다. 발해에서 곰토템은 사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곰 대신 호랑이가 역사의 전

53) 『삼국유사』, 권 제5 효선제구 대성효이세부모, 신문대 부분.

既壯 好遊獵 一日登吐含山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訟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 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 既覺 汗流被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乃爲現生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 表訓 二聖師各住焉 茂張像設 且酬鞠養之勞

54) 『위서(魏書)』, 勿吉국전 권 100 열전 제88 물길국 부분.

國南有徒太山, 魏言太白, 有虎豹熊狼, 不害人, 人不得山上洩汗, 行逕山者皆以物盛去

55) 안자산, 앞의 글.

면에 나타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635회나 등장한다. 왜 곰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호랑이가 등장한 것일까.

곰과 호랑이는 다 같이 지신·산신·여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토LEM이 별안간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곰은 은근·끈기·인내를 상징하며 미련할 정도로 정면을 돌파한다. 그리하여 안확이 말하는 서조전의 토LEM으로 되어 왔다. 호랑이는 이와는 반대로 평시에 발톱을 숨기며 뒤에서 덮쳐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 놓는가 하면 굴에 들어갈 때도 꼬리를 흔들며 뒤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호랑이는 용맹·보은·간지를 상징하는 토LEM이다.

『고려사』 첫 장 ‘고려왕실의 세계’에는 왕건의 6대조 호경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김관위의 편년통록에는 고려 왕실의 기원에 대한 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호경(虎景)이라는 사람이 성골 장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 왼쪽 산골에 와서 거기에서 장가를 들고 살았다. 그의 집은 부유하였으나 아들이 없고 활을 잘 쏘아 사냥을 일삼고 있었다. 하루는 같은 마을 사람 9명과 함께 평나산에 매를 잡으러 갔다가 마침 날이 저물었다. 여러 사람들이 바위 굴 속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때 범 한 마리가 굴 앞을 막고 큰 소리로 울었다. 열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범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시험 삼아 각자의 관을 던져 보아서 그 관을 범에게 물리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당하기로 하자고 하면서 모두 자기 관을 던졌다. 범이 호경의 관을 무는지라 호경이 나가서 범과 싸우려고 하는데 범은 갑자기 없어지고 굴이 무너져 아홉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호경이 돌아와서 평나군에 보고하고 다시 산으로 와서 9명의 장사를 지내주었다. 먼저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 신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본시 과부로서 이 산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당신-성골 장군을 만나게 되어 서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신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바 우선 당신을 이 산의 대왕으로 봉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산신과 호경은 다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평나군 사람들이 호경을 대왕으로 봉하는 동시에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고 아홉 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고 고쳤다.⁵⁶⁾

56) 『고려사』, 고려 세계 부분.

金寬毅編年通錄云 有名虎景者自號聖骨將軍自白頭山遊歷至扶蘇山左谷聚妻 家焉

따은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건의 고조 호경은 산신이요 과부인 호랑이와 혼인하여 산신 대왕이 되었으며 스스로 성골 장군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은 고려가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고구려의 토착인 곰을 버리고 호랑이를 국가의 공식 토착으로 천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6대조 호경을 산신으로 추앙하고 조부 작제건이 용녀와 혼인한 이인이라는 따위의 윤색은 해상 호족이었던 왕건에게 가계를 신격화하는 일이 정치적 급선무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에 와서 국가의 기능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이다. 백두산 호랑이의 얼굴에는 ‘王’자가 선명하고 그 아래 대자가 짝을 이루니 왕건의 가계와 왕실의 권위를 한층 빛나게 하는 환상적 상징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검토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산신의 진화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 장천 1호분에 그려진 바와 같이 굴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곰에게 사람들이 백가지 놀이를 바치는 유형이다.
- B. 쌍계사 삼성당에 봉안된 쌍계신모 산신도와 같이 대나무를 두 손으로 받쳐 든 신모를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호랑이 좌측에는 신발을 배치한 유형이다.
- C. 백발이나 흑발의 노인이 호랑이를 타고 앉아 있는 그림이나, 호랑이를 거느린 백발의 노인 옆에 산신아지씨 또는 산신마누라를 배치한 유형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양주동은 ‘곰’을 모신 또는 여신이라 하였다. 손진태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산 이름 가운데 ‘母岳’·‘大母山’·‘婦山’·‘母山’·‘母后山’·‘慈母山’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여신만이 홀로 산신이었으나 부권이 강화되면서 남신이 주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주장한다.⁵⁷⁾

富而無子善射以獵爲事 一日與同里九人捕鷹乎那山會日暮 就宿巖竇有虎當竇口大吼 十人相謂曰虎欲啗我輩試投冠攬者當之逐皆投之 虎攬虎景冠虎景出欲與虎鬪虎忽不見 而竇崩九人皆不得出 虎景還告平那郡來葬九人 先祀山神其神見曰予以寡婦主此山幸 遇聖骨將軍欲與爲夫婦共理神政請封爲此山大王 言訖與虎景俱隱不見 郡人因封虎景 爲大王立祠祭之以九人同亡改山名曰九龍

A는 ‘곰’이 바로 모신이고 여신인 경우의 산신도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수혈신인 곰에게 백 가지 놀이를 바치고 제사를 모셨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는 국사봉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단골이 거주하던 ‘천왕당’, ‘산신당’을 세웠던 산이다. B는 곰 자리에 호랑이가 들어오고 곰은 여신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C의 경우는 여신 자리에 남신이 주신으로 좌정하고 호랑이는 건재하나 여산신은 산신의 마누라나 산신아지씨로 내려가고 만다.

웅녀신화를 이어받은 신모신화는 곰설화로 변형을 거듭한다. 신모신화가 산신으로 좌정하면서 단골이나 서낭신으로 변형과 위축을 거듭한다. ‘곰’ 화소는 서낭신 뒤에 숨어 ‘곰’자 들어간 마을로 자취를 남길 뿐이다. 서낭신은 마야고·마고·노고 할미로 하락한다.⁵⁷⁾ 마고할미는 탁월한 능력과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신성성을 잃어버린 채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때로는 희화화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산신 신앙은 불교에 치이고 유교 통치이념에 억압을 받으면서 추락한다. 반면에 산신이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으로 민중에게 다가섬으로써 민간신앙으로 자리를 잡기도 한다.

서낭산신이란 본래 사직신인데 토지신 대접을 받은 듯하다. 사직신이란 국토의 주(主)를 말하고 토지신이란 곡물의 장(長)을 말하는데 대개는 두 신을 합하여 사직신이라고 하였다.

『문헌비고』에는 모든 성황신은 국도(國都) 주(州) 부(府) 현(縣) 진산(鎭山)을 편안하게 하는 신이므로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라 하였다. 또, 이익은 서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57) 손진태, 『조선산신의 성에 취하여 (『손진태선생전집』2권, 태학사, 1981) 313쪽.

당초의 산신은 홀로 여신만이 산신이었고 부부신임을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나 후세에 이르러 부권 사상이 발달됨을 따라 여산신에 부신이 없지 못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필경은 남신이 주신이 되어 여신은 단지 산신의 처란 지위에까지 하락된 것이 금일 우리가 민속 상에서 보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58) 마고할미는 마야고, 마구할미, 마구할멈, 마고선녀, 설문대 할망, 노고할미, 서구할미, 고양할미, 개양할미, 안가닥 할무이, 안계동 할무이, 안그락 할무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나에게 성황의 뜻을 묻는 이가 있었다. 나도 그 유래를 몰라서 『국조오례의』에 의거해 보니 여제 축사에 이르기를 “의탁할 곳 없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사람의 죽고 삶이 만 가지로 같지 않은 바, 예부터 지금까지 제 명대로 죽지 못한 자의 종류가 한결 같지 않았다. 혹은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죽기도 하고 혹은 다투다가 구타를 당해 죽기도 하고 혹은 물이나 불과 도적을 만나 죽기도 하고 혹은 굶주림과 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며 혹은 담과 집이 무너져 깔리거나 혹은 벌레와 짐승에게 물려 죽고 혹은 죄 없이 사형을 당하고 혹은 재물로 말미암아 협박을 받아 죽으며 혹은 처첩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고 혹은 위급한 경우에 목매어 죽고 혹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외로운 혼이 의탁할 곳이 없고 제사도 받아먹지 못하니 죽은 혼이 흩어지지 않고 맺혀서 요사스런 짓을 한다. 이러므로 성황에 고하여 못 귀신을 불러 모아서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권해 올리니 너희들 온갖 귀신은 여기에 내려와서 이 음식을 잘 먹고 여역과 재앙으로써 화기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⁵⁹⁾

이익의 말에 따르면 의탁할 곳 없어 제대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사나운 여신(厲神), 구천을 떠도는 중음신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고 말로 어루만져 역질을 예방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제사를 여제라고 하였다. 바람·구름·우뢰·비의 신을 서낭산신의 오른쪽에 정좌시켜 남향으로 하고 풍우단에 신사를 행하였다. 서낭산신은 소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점지하는 칠성이 되기도 하고 깊은 산 속의 약초를 캐어 사람들의 병을 다스려주고 서낭을 범하는 사람에게는 따끔한 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왜구가 이성계에게 파멸 당하자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지리산 천왕신모의 이마를 칼로 쳐서 자국을 남겼는데 이로 인하여 신모는 이성계로부터 호국백이라는 작위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서낭산신의 기능은 환웅천왕의 기능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9) 이익, 『성호사설』, 성황묘 부분.

人有問城隍之義 子不知所本 據五禮儀 厲祭祝辭云 致祭于無祀鬼神 人之生死有萬不齊 徒古迄今不得良死者其類不一 或在戰陣而死國 或遭鬪歐而以軀 或以水火盜賊 或罹飢寒疾疫 或爲墻屋之頽壓 或遇虫獸之螫噬 或陷刑辟而非罪 或因財物而逼死 或因妻妾而隕命 或危急自縊 或沒而無後 或產難而死 或震死 或墜死 若此之類不知其幾 孤魂無托祭祀不及 陰魂未散結而爲妖 是用告于城隍 召集羣靈 侑以清酌庶羞 惟爾衆神來亨飲食 無爲厲災以于和氣

이규경의 화동음사변증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팔로 영현에 선왕당이 있는데 이것은 성황이 잘못된 것이며 옛 충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것은 중국의 령 위의 관색묘와 같으며 혹은 집을 지어 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사석을 고목 아래 쌓아 사를 만들기도 하여 행인들이 침을 뱉고 가기도 하며 혹은 실을 걸어놓기도 하고 혹은 종이를 군데군데 걸어 사를 얼룩지게 했는데 이 풍속은 통전에 마한에서 큰 나무를 세운 소도의 유속일 것이다.⁶⁰⁾

이규경의 말에 따르면 서낭산신은 마한의 소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소도는 솟대니 바로 환웅천왕이 내려온 ‘신단수’요, 『태백일사』에서 말하는 ‘웅상’이다. 강릉 단오제에서 웅상에 강림한 환웅천왕이 암 서낭인 웅녀를 찾아가 좌정하고 제사를 받는 국사서낭제를 살핀 바 있다. 신승겸 등 역사적 인물과 고장에서 존경받는 위인이 서낭산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성모·신모일 경우는 그 주신을 웅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낭산신이 빚어낸 많은 피해 때문에 고려와 조선의 지방 관리들이 서낭제를 국가에서 관장하여야 한다는 많은 상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관장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웅녀로부터 내려온 서낭산신은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고 민중을 어루만지는 생명의 여신·대지의 여신 노릇을 하였던 것이다. 단군과 석탈해가 아사달과 동악에 좌정하여 산신이 되었던 것처럼 웅녀도 서낭에 좌정한 산신이 된 것이다.

5. 마무리

단군신화에서 환인·환웅·단군은 삼신인데 반하여 웅녀는 삼신 격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 행방도 묘연하다. 그러나, 단군이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던 것처럼 웅녀도 단군을 분만한 성모로, 신모인 단골로 민중을 돌보는

60)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음사변증설 부분.

八路嶺峴處有仙王堂卽城隍之誤 古叢社之遺義歟 是如中國嶺上之關索廟也 或建屋以祠 或壘砂石成磊積於叢林古樹下以祠 之行人必膜拜唾之而去 或懸絲緯 或掛紙條髮髮累累然其積磊以祠者 或沿通典馬韓祭鬼神立蘇塗之遺俗也歟

서낭 산신으로 좌정하였다. ‘굴’은 모신이고 여신이니 웅녀는 생명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이다. 웅녀가 첫 번째 단골이었던 것처럼 단군도 무당이다. 웅녀는 성모나 신모가 산신이었던 것처럼 환웅천왕을 만신뎡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암 서낭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세 단계에 걸친 검증 결과이다.

맨 먼저, 웅녀신화의 기본화소는 살아서는 단골이고 죽어서는 산신이 되어 서낭신으로 좌정하였다는 것이 원형이다. 웅녀신화 화소는 한반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알타이·산동반도·요동반도 등 유라시아 대륙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안확과 신체호는 단군신화를 선(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풍류도라고 하였다. 안확은 서조선을 요양과 산동반도로 보고 선사상의 중심지를 요양이라고 하였으며, 의주와 평양을 요양에서 찾고 구월산을 등주로 비정하였다. 신체호는 평양을 북평양이라 하여 험독으로 비정하고 험독을 조선 왕만도(王滿都) 즉 왕검성(王險城)이라 하였다.

강릉 단오제 가운데 대관령국사신이 국사여서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산신이 되어 국사당에 숨어있던 암 서낭 즉 웅녀를 보게 된다. 웅상에 좌정한 신목 베기나 여서낭 모시기는 시베리아와 알타이 등지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기원의례와 비슷하다. 브리야트 무당의 내림곳은 하늘나무인 자작나무에 오방색 땀기를 거는 것 등이 강릉 단오제와 서로 닮았다. 그러나 강릉 단오제에서는 천신이 신목으로 내려와 암 서낭을 찾아가는 반면에 브리야트 무당은 무지개의 상징인 땀기나 하늘나무인 자작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웅녀는 바로 곰이니 모신이고 여신이며 생명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이다. 이와 같은 웅녀신화의 화소는 유화성모·서술신모·아진의선·알영성모와 정견모주의 신화소로 이어받는다. 유화는 목축과 농업을 주관하는 대지의 여신이고 생명의 여신이다. 서술신모는 산신이고 사냥신이면서 직녀신이다. 알영은 대지의 신이고 농업생산신적 성격을 갖는다. 아진의선은 석탈해의 대모이며 바다를 관장하는 생산신이다. 정견모주는 가야산을 관장하는 산신으로 천신에 감응하여 두 아들을 낳아 왕으로 삼으니 생명의 여신이 되었다.

둘째로, 정백동 92호 무덤에서 발견된 장식 띠고리에는 웅녀신화를 신비롭고도 환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를 찢겨짐과 버려짐이라는 입문의례를

통하여 가려받은 것이 꿈설화이다. 웅녀신화에 관한 입말 이야기는 모두 4편으로 유몽인·최상수·류증선·김균태, 강현모 등이 전하는 설화가 그것이다. 『구비문학대계』에는 모두 7편의 꿈 관련 설화가 실려 있다. 웅녀신화에서는 꿈이 웅녀로 변하여 환웅과 혼인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설화는 최상수와 김균태·강현모의 설화만 그러할 뿐 나머지 설화는 꿈과 사람이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웅녀신화에서는 꿈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되기 위하여 3·7일을 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꿈설화는 업어간 사내를 굴속에 가두고 바윗돌로 굴 문을 막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웅녀신화의 금기를 가려받은 것이다.

웅녀신화에서 웅녀와 환웅이 혼인한 뒤 환웅은 소도로 돌아가고 웅녀는 곰토템 마을로 돌아갔을 것이다. 꿈설화에서 꿈과 사람 사이에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은 뒤 꿈이 사냥나간 틈을 이용하여 사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망을 치는데 이는 웅녀신화의 화소를 가려받은 것이다. 꿈이 새끼를 데리고 와 사람을 돌아오라고 하나, 그대로 가버리자 새끼를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찢어 죽이거나 돌바닥에 던져 죽이고 자신도 강물에 빠져죽거나 혹은 산으로 돌아간다. 사람과 꿈 사이에 난 새끼는 물이나 땅에 묻혀야만 짝이 틀 수 있다. 그러니까, 꿈설화에서 죽는 것과 버려진다는 것은 모두 새로운 생명의 소생을 의미한다. 강물을 사이에 두고 사람은 속세로 돌아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산으로 돌아간 꿈은 산신(山神) 즉 산신(産神)이 된다. 꿈설화는 유라시아 북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퍼져있다. 오원커·아이누·오르곤 족은 꿈이 조상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리아를 세운 조상도 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산의 산신체계는 웅석봉에 좌정한 웅녀를 천왕봉에 좌정한 천왕신모가 이어받고 다시 쌍계신모가 이어받은 것이다. 노고단 남악사에 서낭신으로 좌정한 노고할미는 천왕신모의 다른 이름인 마야고·마고인데 이는 천왕신모를 내리받은 경우라 할 것이다.

웅녀신화를 이어받은 신모신화는 꿈설화로 변형을 거듭한다. 신모신화의 신모는 산신으로 좌정하면서 단골이나 서낭신으로 변형과 위축을 거듭한다. ‘꿈’ 화소는 서낭신 뒤에 숨어 ‘꿈’자 들어간 마을로 자취를 남길 뿐이다. 서낭신은

마야고·마고·노고 할미로 하락한다. 마고할미는 탁월한 능력과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신성성을 잃어버린 채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때로는 희화화되기도 한다.

강릉 단오제의 국사서낭제에서는 웅상에 강림한 환웅천왕이 암 서낭인 웅녀를 찾아가 좌정하고 제사를 받는다. 신승검 등 역사적 인물과 고장에서 존경받는 위인이 서낭산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성모·신모일 경우는 그 주신을 웅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웅녀신화에서는 모든 역할을 웅녀가 선택한다. 이는 어머니 중심 사회의 유습이며 웅녀뿐만 아니라 유화·서술신모·알영·아진의선·정견모주 등이 신의 감응을 받을 뿐 모두 버려진다. 서술신모의 남편으로 보이는 붉은 관복을 입은 사내만이 각시바치 흔적을 지닐 뿐이다. 비록 동물이기는 하지만 곰설화에서는 의식주문제를 모두 곰이 해결하는데 이는 각시바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주몽은 소서노의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각시바치이다. 지리산 천왕신모의 남편은 범우화상 또는 반야인데 그들이야말로 대표적인 각시바치라 할 것이다. 천왕신모는 오쥬 누기로 범우화상을 불러내어 스스로 중매한다. 이는 웅녀가 환웅천왕을 찾아가 사람이 되고 환웅과 혼인하는 화소와 일치한다. 한상수의 천왕신모는 이능화의 그것보다 진화되어 있으나 역시 반야도 각시바치의 면모를 보여준다.

□ 참고 문헌 □

- 나경수(1993),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이지영(2000), 『한국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정호완(1994), 『우리말로 본 단군신화』, 명문당
양주동(1948),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김종문·장윤수(1999), 『한국전통철학 사상』, 소강
김열규(1975) 『한국 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 신경득(2006), 『출생의 비밀 그루같이 삶을 위한 씨뿌리기』, 살림터
조흥운(1999),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엘리아데(1992) 『샤머니즘』, 까치글방
조성제(2005) 『무속에 살아 있는 우리 상고사』, 민속원
김근태·강현모(1995) 『부여의 구비설화』, 고병문화사
류증선(1971),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이능화(1991) 『조선무속고』, 동문전
한상수(1986)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Abstract>

Study of Woong-nyeo as the god of mountains

Shin Gyeong-duk(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Dangun mythology Hwan-in, Hwan-woong and Dangun were three gods but Woong-nyeo wasn't raised to the status of goddess. And she was even missing.

However, as Dangun became the god of mountains after his return to Asadal, Woong-nyeo was also seated as the Holy Mother who had given birth to Dangun, a Dangol⁶¹⁾ who was an aging shaman⁶²⁾ and Seonang mountain god who took care of the people. 'Gam' is both a Mother goddess and a female god, so Woong-nyeo is the goddess of life and the goddess of earth. As Woong-nyeo was the first Dangol, Dangun was also a shaman. Like the Holy Mother and the aging shaman were the gods of mountains, Woong-nyeo took Hwan-woong through Mansinmomju and became a female Seonang.

61) Korean traditional words which means Shaman

62) A female shaman or a necromancer

That conclusion is the result of inspections on following three stages.

First, basic subject material of the myth of Woong-nyeo is that she was a shaman in her life and that she became the god of mountains after her death, then was seated as the god of Seonang.

An Hwak and Sin Chaeho said that Dangun mythology is a tasteful picture based on Taoism. An Hwak considered the Western Josun as Liaoyang and Shandong, and Liaoyang as the central place of Taoism. He also regarded Ui-ju and Pyeong0yang as Liaoyang and fixed Mt. Guweol as Deung-ju. Sin Chaeho named Pyeong-yang 'The Northern Pyeong-yang' and fixed it as Heomdok, which was called Josun Wangmando or Wang-geomseong.

In Gangneong Dano festival, we can see a stage on which God of national mentor in Daegwanryeong visits a female Seonang of national mentor. On his visiting, he sees a female Seonang, Woong-nyeo who became a mountain god and have been hiding in the shrine of the national mentor. The basic subject material of Woong-nyeo like this was inherited to the basic materials of myth of the Holy Mother Yuhwa, Seosul aging shaman, Ajinuseon, the Holy Mother Ayeong and Jeong-gyeonmoju.

Second, a belt ring for decoration that was found in a grave No.92 in Jeongbaek-dong symbolized the myth of Woong-nyeo what is fantastic and mystic. This changed and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an initiation ceremony of being torn and being scrapped, to be a narration about the bear.

There are four oral literatures about the myth of Woong-nyeo reported by Yu Mong-in, Choi Sang-su, Ryu Jeung-seon, Kim Gyun-tae, Gang Hyeon-mo and others. 『Gubimunhak Daegye』(the Outline of Oral Literature) has 7 narrations about the bear.

In the myth of Woong-nyeo, a bear and a tiger was cautious for 21 days to become human beings.

In the narration about the bear, the bear has two or three babies in the relation with a human and then the human got across a river by boat and ran away while the bear was hunting - this changed and transmitted from the materials of the myth of Woong-nyeo. The bear brought her babies and ask him to return, but he just went away. She killed her babies by throwing away into the river, tearing or throwing away on the road with stone and then she fell into the river to die or returned to the mountain. The babies in the relation between bear and human can begin to bud only when they get buried under ground or water. Accordingly, both dying and being scrapped mean revival of new lives.

Third, the composition of mountain gods in Mt. Jiri is that Cheon-wang aging shaman, seated on Cheonwang-bong, is succeeded by Woong-nyeo, seated on Woongseok-bong, and it succeeds to SSang-gyeo aging shaman. Nogo Halmi⁶³⁾ seated on Namak-sa in Nogodan as a tutelary deity is Mayago or Mago which is another name of Cheon-wang aging shaman, this is the case of taking Cheon-wang aging shaman.

The myth of aging shaman which is succeeded by the myth of Woong-nyeo transformed into a narration of the bear again. The aging shaman from the myth of aging shaman transformed and withered several times by being seated as a mountain god. The basic material of 'the bear' only leaved its trace by the village whose name contains the character 'Gom'.

There are some cases which Sin Seung-gyeom, and others who are the historical characters and the men who are held in respect in their region, are seated as tutelary deities. But in the case of the Holy Mother or a aging shaman, the master god can be seen as Woong-nyeo.

Finally, in the myth of Woong-nyeo, she herself chooses all kinds of role. This is a tradition of a matricentric society. And in the narration about the bear, the bear solves the problem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it shows the image of Gaksibachi.

Key words: Woong-nyeo, the god of mountains, the god of Seonang, narration about the bear

이 름 : 신경득

근무처: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 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전 화: 055-751-5841

전자우편: achimnara@dreamwiz.com

논문 접수: 2008년 3월 31일

심사 완료: 2008년 5월 4일

게재 확정: 2008년 5월 11일

63) a Buddhist nun with unshaved head